

KLPGA members

2017
vol.47
JANUARY

01



커버스토리

2017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박지영을 만나다

라이칭스타

내 골프 여정은 지금부터 김수지 인터뷰

특집기사

2016시즌 최고의 순간, 최고 시청률 BEST 5

대상 시상식

2016시즌 KLPGA를 빛낸 골프인들의 축제



Heal Creek



19H INTERNATIONAL 02-569-1900 www.healcreekkorea.co.kr

현대백본점(02-3438-6180) / 현대백무역점(02-3467-8824) / 현대백대구점(053-245-2652) /
롯데백삼실점(1월초오픈예정) / 대백프라자(053-253-1818) / 양재하이브랜드(02-2155-2313) /
삼패점(031-576-4845)

BIG BANG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어려웠던 아이언 4,5번 거리를 이제부터는 아이언 7,8번으로

쉬운고, 포기하지!!



누구나 한 두 번 실수를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실수 후에 만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나 가끔 드라이버를 잘못 칠 수 있지만 현명한 골퍼는 세컨샷 선택이 다릅니다. 돌이켜 보면 스코어는 여기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길게 남은 거리 - 롱아이언을 잡아야 할 시점에 40야드 더 나가는 뱅 롱디스턴스 하이브리드 클럽을 잡으면 쉽고 편하게 투온이 되어 티샷 실수를 만회합니다.

반발계수 0.925
40yd 더 나가는 **극초고반발**
하이브리드 아이언
BIG BANG Longdistance

일반적인 아이언보다

-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체적이 커서 스위트팩이 넓고 빗맞아도 뒤들리지 않는다.
- 출발 백스핀 1.12배, 착지 백스핀 3.5배 증가 - 백스핀이 너무 많아 그루브를 없앴다.
- 뒷땅이 없다.
- 벙커샷이 페어웨이처럼 쉽다. (페어웨이 벙커에서 일반 아이언은 미스샷이 많지만 하이브리드 아이언은 미스샷이 없어 최대 비거리를 낼 수 있다.)
- 엘보우가 없다.
- 스윙이 쉽고 편하다.
- 세계에서 제일 가볍다. (초경량, 스윙밸런스 B3까지도 가능)

대표전화 : 1544-807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537-3 (아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주의 - 뱅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래미 없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Made in Japan or Made in Korea - Fitting ※ 가격 영일 불변 정책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KLP6A 공식 페이스 스킨케어 디바이스

PERFECT MAKE-UP

두/드/리/면/ 아름다움의 길이 열립니다.

보습/영양/자외선 차단이 하루종일 지속됩니다.
메이크업 제품이 얇고 균일하게 발라집니다.

라운드전
선크림을 완벽하게
발라주는
Patting Master

골프장 활용 TIP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Patting Master



Ta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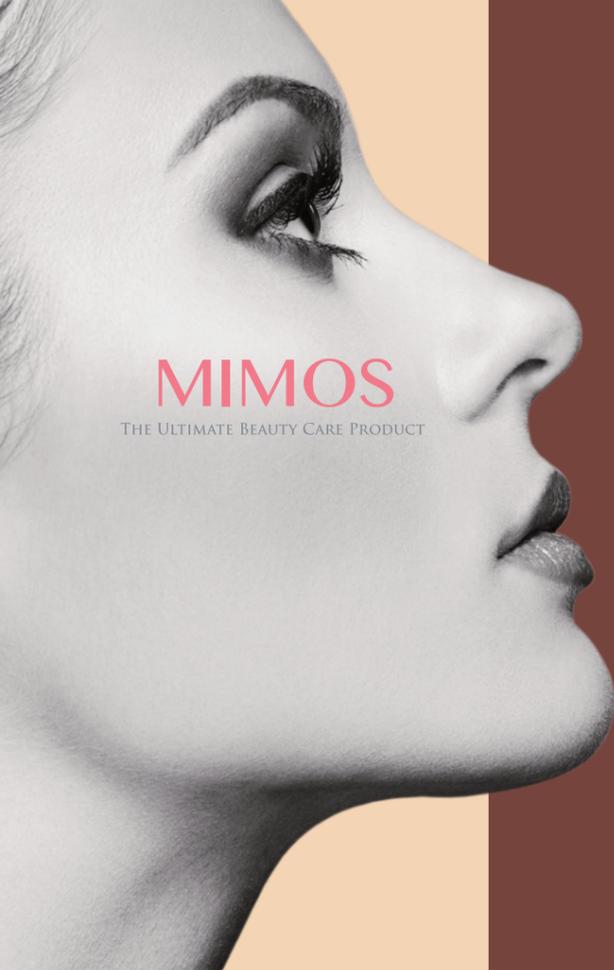
Rumba



Jive

MIMOS

THE ULTIMATE BEAUTY CARE PRODUCT



SBI저축은행 허윤경 프로

SK와이번스 김광현 선수

두산베어스 김재호 선수



ABSOLUTE CLEANSING

단 1분에 완벽한 클렌징을 원하세요?
기술로 채워지는 아름다움
피부를 깨우는 시간
“60초”

깨끗한 피부와 건강한 두피를 위한 2IN1 SYSTEM Cleansing Master



Cantata



Bolero



Cello



Chorus

골프장 활용 TIP

라운드후
완벽한 클렌징과
두피 스트레스 회복은
Cleansing Master

MIMOS

THE ULTIMATE BEAUTY CARE PRODUCT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웨딩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8-4 사라빌딩 4층 Tel 02.547.9495 www.stncw.co.kr 담당자_이창현 010.4823.1800

(주)센트로닉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번길 10 중앙빌딩 신관 www.mimos-beauty.com 고객센터 : 080-850-0963



Section 01 KLPGA & Tour

- 06 멤버십 서비스
회원 혜택과 회원 동정
- 12 투어스케줄
2016 정규투어 스케줄
- 15 KLPGA 뉴스
KLPGA 주요 뉴스 및 공지사항
- 16 투어뉴스
KLPGA투어 소식
- 20 베스트포토
박준석 공식사진기자가 뽑은
KLPGA투어 베스트 명장면

Section 02 People & Story

- 22 투어대항전
KLPGA 역전의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
- 26 대상 시상식
꿈의 무대, 꿈의 시상식
2016 KLPGA 대상 시상식
- 32 위시 퍼즐
선수들의 2017년 소원 퍼즐
- 34 커버스토리
2017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박지영을 만나다
- 38 라이징스타
내 골프 여정은 지금부터
김수지 인터뷰
- 40 특집기사
2016시즌 최고의 순간
SBS골프 최고 시청률 BEST 5

Section 03 Life & Communication

- 44 핏 트레이닝
골프 샷 전, 샷 후 회복의 기술
- 46 동계 봉사활동
KLPGA와 함께하는 첫 번째 나눔의 시간
- 48 명예기자 뉴스룸
KLPGA 2016 루키 릴레이 인터뷰
- 55 트렌드 알리미
또 다시 '패딩'의 시대가 돌아왔다!
날씬하게, 따뜻하게 패딩 입는 법
- 56 파고다스타의 생활회화
SNS
- 56 틀린그림찾기

Cover Story



표지이야기
단아한 자태가 매력적인 겨울꽃,
1월 탄생화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입니다.
박지영 프로의 값진 우승은 훌륭하고 귀중한
노력의 시간이 만들어 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017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활기차게, 더 멋지게
비상할 박지영 프로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발행일 : 2016년 12월 25일 VOL.47호 **발행인** : 강춘자
발행처 :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대치동) 송석빌딩 8층
TEL : 02-587-2929 **FAX** : 02-539-6003
홈페이지 : www.klpga.com
기획 · 디자인 : (주)디자인페이지(02-324-9422)

2017 Season's Greeting &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 동안 KLPGA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풍성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KLPGA는 세계넘버원 투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KLPGA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웃음꽃 넘치는 한 해,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혜택

- KLPGA 정회원, 준회원 및 티칭 회원 대상
- 1) 스카이72 GC 인터넷 회원일 경우 예약 또는 내장 시 10% 할인
주중 바다코스(오션, 레이크, 클래식)
 - 2) 드림골프레이저 할인 : 자동타석 30%(주중), 20%(주말) 할인



기간 | 2005년~
대표문의 | 1544-7272
위치 | 인천 중구 공항동로 392
홈페이지 | www.sky72.com

하늘과 바다 사이를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인천국제공항 유휴부지 121만 평에 조성된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공항전용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 어디서든 자동차로 4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4개의 정규 골프 코스(72홀)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드림골프연습장, 신개념의 골프코스 드림듀스코스(9H)를 갖추어 대한민국 골프장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연평균 약 4회의 KLPGA와 KPGA 메이저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USLPGA투어를 9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골든베이(한화 골프장)

혜택 | 1) 골든베이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그린피 할인(팀당 36만 원 / 4인 1팀 기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기간 | 2014년 11월 ~ 연락처 | 041-671-8000, 8100
홈페이지 | www.goldenbay.kr

골프사랑

기간 | 2012년 4월 1일 ~ 담당자 | 김중석 과장
혜택 | 골프사랑 전 여행상품(홈페이지 참조) 직원이 적용, 국내전세버스 정상요금의 10~15% 할인
연락처 | 031-284-7777 국내 전세버스는 가족회사(주삼일관광여행사와 연계하여 운영)

골프존아카데미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정상 판매가격에서 50% 할인(상성 / 목동지점 제외) 이용가능 지점
서울 : 공덕점, 발산역점, 중계점, 신반포점, 강남점
경기 : 서판교점, 행신점, 분당오리점, 정자동, 용인보정점, 김포사우점, 일산마두점, 남양주호평점

조건 | 1회(60분) 이용 / 등록 자점에 한함 담당자 | 엄동환 대리 연락처 | 070-8640-6431

대영힐스 CC

기간 | 2012년 12월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그린피 69,000원(단, 주말/공휴일은 그린피 할인 없음)
담당자 | 서병일 대리 연락처 | 043-850-8601~3
기타 | 그린피 할인을 위한 '대영힐스 CC 프로등록 신청서'를 제출

레이크힐스 용인 CC

기간 | 2012년 7월 15일 ~
혜택 | 정회원 내장 시 1인 정회원 대우, 그린피 : 정회원 23,000원 / 주중회원 100,000원
연습장 이용 시 KLPGA 정회원, 준회원 50%
담당자 | 영업운영팀 최남미 연락처 | 1588-8186

롯데스카이힐

기간 | 2015년 5월 ~
혜택 | KLPGA 정회원 및 준회원 내장 시 주중 50% 할인, 주말 30% 할인
(김해CC 이용 시 개별소비세 별도)
연락처 | 제주(064-731-2020~24), 김해(055-340-9001~4),
성주(054-930-9001~3), 부여(041-939-1701~4)

리앤리 CC

기간 | 2013년 5월 20일 ~
혜택 |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1부 4인 1팀 기준 그린피 50% 할인,
당사 인터넷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예약만 가능(전화예약 시 혜택 불가)
담당자 | 김민기 대리 (영업담당) 연락처 | 031-580-9021

무주안성 CC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KLPGA 정회원 : 그린피 50% / 정회원 간 2인 플레이 가능, KLPGA 준회원, 티칭회원 : 그린피 30%
연락처 | 063-320-3215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35

보성 CC

기간 | 2015년 4월 ~ 2018년 3월
혜택 | 그린피 회원 2명까지 면제, 호텔다향 50% 할인, 레스토랑 20% 할인, 미술관 무료 관람
연락처 | 061-804-1000 (대표전화)

(member's service)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매달 분야별로 세 개 업체의 회원혜택을 순서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기간 | 2016년 7월 ~
혜택 | KLPGA 정회원 1인 동반자 3인 내장,
내장고객 호텔 1박 이상 이용 시 정회원 1인 그린피 무료
연락처 | 1644-0280 홈페이지 | www.southcape.co.kr

서원힐스 · 서원밸리

기간 | 2014년 9월 ~
혜택 | [힐스] 대중제 주중 4인 시 본인 50%할인, 3인 시 본인 2만 원 할인
[밸리] 회원제 22,620원(세금연제)
연락처 | 031-940-9400 홈페이지 | www.seowongolf.co.kr

세라지오 CC

기간 | 2013년 8월 12일 ~
혜택 | 1) KLPGA 회원 내장 시 주중 : 25,000원 / 주말 : 105,000원
2) 당사 회원과 동반 내장 시 주중 : 105,000원 / 주말 : 150,000원
주말 예약은 2부에만 가능, 주말 해당일 12일 전 이후 예약 가능
연락처 | 031-887-8700 (예약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기간 | 2005년 ~
혜택 | 1) 그린피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및 티칭회원 중
스카이72 GC 인터넷 회원일 경우 예약/ 내장 시 10% 할인, 주중 바다코스(오션, 레이크, 클래식)
2) 드림골프레이저 할인 :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자동타석 30%(주중), 20%(주말) 할인
담당자 | 스카이72 GC 김형준 매니저 연락처 | 1544-7272

스프링베일 GC

기간 | 2012년 ~
혜택 | 1) 주중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면제(동반자 2명일 경우 50% 할인)
2) 주말 18홀 : KLPGA 회원 1명, 동반자 3명 내장 시 회원 1명 그린피 50% 할인
(동반자 2명일 경우 혜택 없음) 1팀 내 회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만 혜택

신안골프 트레이닝센터

기간 | 2014년 7월 ~ 연락처 | 031-673-8853 홈페이지 | www.shinanco.co.kr
혜택 | 타석, 파3, 병커 / 쇼트게임, 사우나 이용료 할인

써닝포인트 CC

기간 | 2016년 3월 ~ 연락처 | 031-329-0800(예약실)
혜택 | 1) 그린피 할인: KLPGA 정회원 주중 50%, 주말 30% / 준회원 주중 30%, 주말 15%
2) 숙박할인: 1박 기준 2인 1실 6만 원(정회원, 준회원 동일)

오너스골프클럽

기간 | 2014년 3월 ~ 연락처 | 033-260-1918, 1919
혜택 | 주중 정상 그린피의 50% 적용 (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옥스필드 CC

기간 | 2012년 4월 ~
혜택 | KLPGA 정회원 1명, 동반자 3명(4인 1팀) 내장 시 회원 1명 골프장 정회원 대우(그린피 23,000원)
담당자 | 예약실 박성민 연락처 | 033-340-7700

우리들리조트 제주

기간 | 2012년 10월 ~
혜택 | 동반자 2~3인 내장 시
정회원 :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50% 할인, 준회원 : 주중 그린피 50%, 주말 20% 할인
담당자 | 강유진 프로 연락처 | 064-766-7802 / 010-9162-0207

인터버그강산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해당일 5일 전부터 잔여 타임에 한해 시행, 해당일 5일 이전 예약 요청 시 팀당 50% 1명 할인
연락처 | 1544-4222 (예약실) 홈페이지 | www.interburgoccc.com

중원골프클럽

기간 | 2015년 9월 ~
혜택 | 지방 행정 공제회에 가입되어있는 회원과 회원의 배우자 그린피 30%할인 적용
연락처 | 042-849-8000 홈페이지 | www.joongwongolf.co.kr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인동로 392

캐슬렉스 제주 CC

기간 | 2015년 4월 ~
혜택 | KLPGA 회원 그린피, 객실 할인(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1) 회원, 동반자 그린피 할인
2) 골프텔 객실 할인, 제주도 대회 참가 프로 예약시 객실도 별도 협의 가능
3) 골프장 및 객실 이용 시 연습장 할인(바구니 5천 원)
담당자 | 주홍성 영업총괄팀장 연락처 | 064-793-6600 / 010-2697-0001

타니 CC

기간 | 2012년 ~
혜택 | KLPGA 정회원 본인 그린피 할인 : 주중 6만 원 (할인 혜택은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연락처 | 055-831-7010

파인비치골프링크스

기간 | 2014년 3월 ~
혜택 | 1) 프로 1명 + 비회원 3명 : 프로는 주중 3만 원 / 주말 5만 원
2) 동반자는 당일팀 : 정상가 / 1박 2일 팀 : 패키지가 적용 프로 4명 : 주중 50% 할인
3) 프로 추천팀은 주중 2만 원 할인(단 카트비, 캐디피는 정상)
담당자 | 박정연 주임 연락처 | 061-530-7722, 7723

포천힐스 CC

기간 | 2015년 3월 1일 ~
혜택 | 주중 1부(08:30 이전) : 6만 원, 일요일 2부(12:30~이후) : 8만 원
연락처 | 031-538-7000(예약실)

한성 CC

기간 | 2015년 3월 ~
혜택 | 주중 1부(07:30 이전)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면제 (4인 1팀 기준)

해비치 CC 제주

기간 | 2014년 4월 ~
혜택 | 프로는 골프장 회원요금, 동반자는 골프장 규정요금
연락처 | 프론트(064-766-6200), 익스프레스(064-780-8000)
홈페이지 | golf.haevichi.com (사전예약제로 운영)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기간 | 2015년 6월 12일 ~ 연락처 | 051-726-0752
혜택 | 주중 1부 아마추어 3인 동반 시 프로 1인 그린피 50,000원
아마추어 2인 동반 시 프로 2인 그린피 65,000원

힐드로사이 CC

기간 | 2014년 8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5만 원(4인 1팀 기준)
연락처 | 예약실 033-439-3333(유선 예약만 가능)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360도 CC

기간 | 2014년 1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1인 그린피 주중 50% 할인(4인 1팀 기준),
 1일 1회 본인에 한하여 주중 잔여 타임에만 가능
 담당자 | 윤준섭 주임(031-880-3612) 연락처 | 031-880-3600



강남 베스트성모안과

기간 | 2016년 1월 ~ 연락처 | 윤형준 실장 (010-9771-8690)
혜택 | KLPGA 회원 대상 시력교정시술 할인
 1) 베이직 라식/라섹 : 120만 원 → 59만 원
 2) 양막 라식/라섹 : 160만 원 → 79만 원
 3) 올레이저 라식/라섹 : 200만 원 → 89만 원
 4) 미모 라섹 : 220만 원 → 99만 원
 5) 아베드로 엑스트라 라섹 : 300만원 → 담당자 문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4-9 송촌빌딩 14층(역삼역 6번 출구)

서울메디케어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1) 종합검진비 20% 감면, 비급여검사비 20% 감면
 2) 연계진료 필요 시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 진행
 의료혜택항목 : MRI, MDCT,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 비급여 영상검사 외
 연락처 | 1644-0336 홈페이지 | www.seoulmedicare.com

서울미소치과

기간 | 2016년 12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및 임직원(직원가족 포함)을 위한 비보험 치과치료 할인 혜택 제공,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분석 및 교정 분석 (CT 포함) 제공
 대표문의 | 박선미 실장(02-515-2875)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2길 29 8층

서울위드치과

기간 | 2014년 2월 ~
혜택 | 회원 및 가족 대상, 비보험 치료 10~20% 할인
 담당자 | 정홍주 부장 연락처 | 010-7795-0515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0번길 19, 4층(서현동, 센트럴빌딩)

세브란스체크업

기간 | 2014년 9월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혜택 | 1)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을 위한 패키지검진
 2) 지방 고객에 한하여 KTX 편도 금액 상당의 할인 혜택 제공(영수증 지참 ※)
 3)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
 4)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5) 서비스 대상자가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으로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연락처 | 1588-7757 (사전예약제로 예약 필수)
 위치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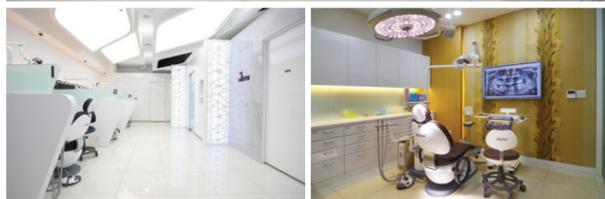
이스턴 치과의원

기간 | 2012년 11월 ~
혜택 |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담당자 | 김미경 진료실장 연락처 | 02-553-2804

서울위드치과

혜택

회원 및 가족 대상, 비보험 치료 10~20% 할인
 임플란트 : 네오 75만 원, 오스템 85만 원, 보험 임플란트 55만 원
 치아교정 : 메탈 180만 원, 클리피씨 240만 원(월비별도)



기간 | 2014년 2월 ~
 연락처 | 010-7795-0515
 담당자 | 정홍주 부장(상담, 예약)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0번길 19, 4~5층
 홈페이지 | www.seoulwith.co.kr

서울위드치과는 진료과별 8명의 원장들의 협진을 통해 개인별, 진료료 및 맞춤 진료를 하고 있으며, 치과용 cad/cam시스템을 이용하여 좀 더 빠르고 정밀한 보철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시간적인 편의를 위하여 공휴일 진료 및 주 4회(월, 화, 목, 금 오후 9시까지) 아간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치과주치의로서 치아에 관련된 고민이나 상담부터 치료까지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본 혜택은 KLPGA 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어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안과의원

기간 | 2012년 7월 1일 ~
혜택 | 안구 종합검진(50여 가지 정밀검사) 무료,
 시력교정술비 혜택(라식, 라섹, 안내 렌즈삽입술, 노인수술),
 ONE-DAY 수술 가능(추가비용 없음), 웨이브프론트 무료 수술회랑 시 제휴 특가,
 KLPGA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시력교정시술 할인
 연락처 | 02-573-9779 (사전예약제로 운영)



군산 세빌스 호텔

기간 | 2015년 5월 20일 ~
혜택 | 슈퍼리얼 트윈룸, 더블룸 198,000원 → 주중 66,000원 / 주말 88,000원 / 조식 별도(15,000원)
 담당자 | 최한나 지배인 연락처 | 063-790-8082

군산 오스카스위트 호텔

기간 | 2014년 6월 11일 ~
혜택 | 디럭스더블 / 110,000원 → 60,000원(할인가)
 디럭스 트윈 / 121,000원 → 50,000원(할인가)
 스위트 더블 / 143,000원 → 88,000원(할인가)
 스위트 트윈 / 154,000원 → 105,000원(할인가)
 스위트 트리플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로얄테라스 스위트 / 220,000원 → 135,000원(할인가)
 디럭스 더블, 디럭스 트윈, 스위트 더블 2인 기준 / 조식 불포함 / 부가세 포함
 한 객실 추가 투숙 시 1인당 객실요금 10,000원 / 조식 10,000원 제공
 담당자 | 박진만 지배인 연락처 | 063-464-0505~6

그랜드컨벤션센터

기간 | 2013년 6월 ~ (선착순 50팀)
혜택 | KLPGA 회원 각 직계 부모, 자녀 예식, 고회연, 돌잔치 할인(계약 순서에 따라 50팀)
 담당자 | 유미영 차장, 신경선 과장 연락처 | 02-3667-9000, 7776

금호리조트

기간 | 2015년 4월 ~ 연락처 | 02-737-5400(예약실)
혜택 | KLPGA 회원 및 직계 가족 객실 할인 혜택(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이용방법 | 1) KLPGA 회원혜택 해당란을 통해 예약페이지 접속 후 예약 진행
 2) 예약실 유선예약도 가능

까리디

기간 | 2012년 9월 ~ 연락처 | 02-545-4000
혜택 | 까리디에서 제공하는 헤어, 메이크업 관련 모든 서비스, 정가의 50% 할인

캐스텔바작

기간 | 2016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 대상, 30% 할인
 대표문의 | 02-3498-0358 담당자 | 오현선
 홈페이지 | www.castelbajackorea.com

레드캡투어

기간 | 2012년 9월 ~
혜택 | 일반 여행 상품 최대 9% 할인, 해니문 최대 10% 할인, 직계가족, 대리 예약 등, 무이자 혜택 서비스
 담당자 | 레드캡투어 마케팅팀 연락처 | 02-2001-4500
 기타 | 신규 KLPGA 회원의 경우, 상단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 KLPGA 회원의 경우, ID 및 패스워드는 KLPGA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혜택은 KLPGA 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혜택의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과 해당병원이 해결합니다.

레보[Revo]선글라스

기간 | 2016년 7월 ~ 담당자 | 노연서 대리 연락처 | 070-4291-8383
혜택 | KLPGA 회원, 전제품 30% 할인 홈페이지 | www.revokorea.com

메디 필라테스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KLPGA 회원 본인 및 가족 30% 할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SK허브 C동 105호
 담당자 | 박혜지 프로 연락처 | 031-602-7840 홈페이지 | blog.naver.com/medipilat

쥬모리안

기간 | 2016년 1월 ~
혜택 | 모리터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50% 할인(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담당자 | 한혜주 과장 연락처 | 051-929-6916 / 051-9733-9733
 홈페이지 | www.ks1004.kr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 기입

범양글러브

기간 | 2016년 7월 ~
혜택 | 스키치글러브 45% 할인, 할인행사기간 중 전제품 최대 80%
 담당자 | 윤정안 실장 연락처 | 070-717-217 홈페이지 | www.kglove9.com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기간 | 2014년 10월 ~
혜택 | KLPGA 회원 세계골프역사박물관 관람 시 무료 입장(월~토 : 10시 30분~19시)
 담당자 | 이동은 학예사 연락처 | 02-2192-3005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슈퍼리얼타워 지하2층
 기타 | KLPGA 회원임을 밝혀주시고, 회원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바쿠스 골프웨어

기간 | 2016년 10월 ~
혜택 |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신상품 40%, 과년도 50% 할인
 담당자 | 영영부 최재형 차장 연락처 | 02-552-1534
 홈페이지 | www.abacusgolf.co.kr

쥬와룡산업 와플케어 개인용 온열기

기간 | 2014년 12월 ~
혜택 | 개인용 온열기 전품목 30% 할인 (본사 홈페이지 및 전화 주문 구매)
 의료용(2인용) / 소비자가 700,000원 → 할인가 490,000원
 의료용(1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2인용) / 소비자가 550,000원 → 할인가 385,000원
 고급형(1인용) / 소비자가 450,000원 → 할인가 315,000원
 실속2인용 / 소비자가 500,000원 → 할인가 350,000원
 투어용 / 소비자가 350,000원 → 할인가 245,000원
 쇼파용 / 소비자가 250,000원 → 할인가 175,000원
 방석 / 소비자가 120,000원 → 할인가 84,000원
 베달개 / 소비자가 150,000원 → 할인가 105,000원
 담당자 | 김선옥 실장 연락처 | 031-977-8774 홈페이지 | www.waplecare.com
 기타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KLPGA 기입
 본 혜택은 KLPGA 회원에 한하며, 이용 시 반드시 회원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턴인터내셔널호텔

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연락처 | 032-747-3301
혜택 |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연간 동일한 가격 혜택
 담당자 | 임현빈 마케팅 부장 (070-4510-6241)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29번길 47

member's service

회 / 원 / 혜 / 택

타미카퍼

혜택

타미카퍼 기능성 보호대 및 의류 전 품목 정상 소비자가 대비 30% 할인

* 타미카퍼 공식 온라인 자사몰(www.tommiacopper.co.kr)

구매 시에만 혜택적용 가능



기간 | 2016.12~

대표문의 | 070-4277-3134

담당자 | 김지은 마케팅 팀장

홈페이지 | www.tommiacopper.co.kr

이용방법

- 1) 타미카퍼 홈페이지 회원 가입
- 2) 카카오톡에서 '타미카퍼' 친구 추가 후 회원ID와 KLPGA 회원번호 발송
- 3) 'KLPGA 회원 전용 등급'으로 변경 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

타미카퍼는 편안한 압박으로 순환을 도와 통풍, 붓기 완화 및 근육 피로 회복을 돕는 기능성 웰니스(Wellness)웨어입니다. 국내 최초 구리와 아연이 함유된 '카퍼 지너지'(Copper Znergy™)소재는 항균, 땀 냄새 억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해 긴 라운드 시에도 쾌적하며 특하 받은 4D 컴프레션 기술은 제 2의 피부와 같은 신체에 가장 적당한 압박으로, 입은 듯 입지 않은 듯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실제 라운드 시에도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신축성과 두꺼운 운동용 아 니라 일상에서도 착용하며 빠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KLPGA 회원님들의 더욱 편안하고 건강한 라운드를 위해 전 제품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웰리힐리파크(구.성우리조트)

기간 | 2012년 12월 1일 ~

혜택 | 객실이용 시 기간별 특별요금으로 제공

객실예약 | www.wellihillipark.com/partnership | 객실장산문의 | 1544-8833(ARS 1번)

제주 빌라드 애월

기간 | 2015년 6월 ~

혜택 | 객실료 50% 할인(풀빌라 제외)

연락처 | 064-720-8013 | 주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516-7(신입리 2768-7)

제주센트럴시티호텔

기간 | 2016년 7월 ~ 2018년 6월

혜택 | 1) 객실할인: 주중 100,000원 / 주말·연휴 110,000원

2) 조식할인: 회원 본인 10,000원 / 동반 고객 15,000원

3) 렌터카 업체 연계 차량 렌탈 할인 서비스 제공

담당자 | 김창근 부장 | 연락처 | 064-800-2603 / 010-6690-0796

주소 | 제주 제주시 노연로 66

제주 항공우주호텔

기간 | 2014년 5월 ~

혜택 | 슈퍼리어(9평) : 주중 70,000원 / 주말 90,000원

디럭스(13평) : 주중 80,000원 / 주말 100,000원

객실예약 | 064-747-4900 | 기타 | 성수기(7/25 ~ 8/20) 별도 요금 적용

창풍리조트

기간 | 2015년 12월 ~

혜택 | 객실(23㎡, 스탠다드 트윈/온돌) / 정상 요금 : 133,000원

할인요금(VAT포함) / 주중(일~목) : 60,000원, 주말(금, 토) : 75,000원

담당자 | 박종미 | 연락처 | 02-422-8100

캘러웨이 골프 어패럴 할인

기간 | 2016년 1월 ~

혜택 | 캘러웨이 어패럴 30% 할인(정상이 대비) / 전국매장(정상매장, 아울렛)

담당자 | 최은영 과장 | 연락처 | 02-2211-1343

타미카퍼

기간 | 2016년 12월 ~

혜택 | 타미카퍼 기능성 보호대 및 의류 전 품목 정상 소비자가 대비 30% 할인

대표문의 | 070-4277-3134 | 담당자 | 김지은(마케팅 팀장)

홈페이지 | www.tommiacopper.co.kr

헤지스골프, 닥스골프 할인

기간 | 2016년 2월 1일 ~

혜택 | 소비자 정상가 40% 할인(1인 200만 원 한도)

1) 온라인 : 협회 홈페이지 접속 → LF(www.lfmail.co.kr) 헤지스골프, 닥스골프

2) 오프라인 : 전국 주요 가두매장(백화점 제외)

연락처 | 1544-5114(고객센터)

협회 소식지에 실릴 회원분들의 많은 소식과 정보를 기다립니다. (klpgamembers@naver.com)으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파고다 어학원

기간 | 2016년 4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매달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 70% 할인,

N파고다(온라인) 2강좌 무료 수강, 파고다 스타(온라인) 50% 할인

(오프라인 강좌 70% 할인)

• 파고다 어학원 4개 지점(강남점, 종로점, 신촌점, 부산점)

• 각 지점별 등록 시 직접 방문 신청(KLPGA 회원증 지참 필수)

※ 수강 가능 연령 제한 없음

(온라인 강좌 N파고다 2강좌 무료 수강)

• KLPGT 홈페이지 → 멤버존 → 외국어교육 배너 클릭 후 수강 등록

(온라인 강좌 파고다 스타 50% 할인)

웹주소 : www.pagodastar.com 가입 후 수강 등록

신청기간 | 매월 15일 ~ 30일

담당자 | 파고다 교영순 대리 | 연락처 | 02-6907-2867

기타 | 수업(온라인, 오프라인) 진도를 70% 미달일 경우 : 1년간 지원 중단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파고다 SCS(전화외국어)

기간 | 2016년 1월 ~

혜택 | KLPGA 회원 무료 전화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1) 모집인원 : 70명 (영어 : 50명, 일본어 : 10명, 중국어 : 10명)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2) 교육기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주 3회 교육) / 매일 06:00 ~ 24:00 중 선택

3) 교육지원

- 주3회 10분 교육, 매일 교육비 100% 협회 지원(1인당 약 60,000원)

- 사이버강의 무료 지원 : 파고다 홈페이지 사이버강의 무료 수강

4) 지원기간 : KLPGA에서 개인별 최대 4개월(총 48회)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담당자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담당자 | KLPGA 주연수 사원 jys821@klpga.com

연락처 | 02-560-4427, FAX)02-539-6003

홈페이지 | klpga.npagoda.com/user/main

기타 | 1) 70% 이상 수업을 듣지 않을 경우 자동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출석률 미달 시점을 기산 월로 차후 1년간 전화영어교육 지원 중단(수업 연기 불가)

2) 매달 지원중단자에 대한 공석은 대기순위로 대체 (신규모집 시 대기순위 부여)

한국능률협회(회원인문소양교육)

기간 | 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7월

혜택 | KLPGA 회원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참가 지원 및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할인(기타혜택)

1) 교육대상자 : KLPGA 회원(정/준/티칭)

2) 교육형태 : 매월 1회

3) 교육프로그램

가. 리더스모닝포럼(서울)

4) 모집인원(신청순모집)

가. 리더스모닝포럼 : 선착순 20명 예정

※ 우선순위 : 1순위(신규 신청자), 2순위(기존 신청자)

5) 교육기관 : 한국능률협회

6) 교육지원

매월 1회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되는 포럼 참가 및 참가비 100% 협회 지원(인당 약 200,000원)

7) 신청방법

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로 신청

나.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또는 FAX로 발송

다. E-MAIL : jys821@klpga.com / FAX : 02-539-6003

■ 기타혜택

가. KLPGA 회원 한국능률협회 교육 신청 시 최대 20% 할인

- 공개교육(계층, 리더십, 공통, HRD, 직무, 글로벌 과정, KMAC 직무과정)

- 사이버교육(계층, 리더십, 조직, 경영, 영업, 금융, 유통, 제조, 건설, 의료 과정)

- 컨퍼런스(트렌드 세미나)

※ 홈페이지 참조 www.kma.or.kr

나. 기타 세미나 초청(영동지식 콘서트, HRD 특별 컨퍼런스, KMA 프로포즈 데이)

다. B2B 서비스(할인)

- 경비 절감(5~60%) : DHL 코리아, 한국렌탈, KT금호렌터카, 한수지 플라워

- 직원 복지(15~50%) : 슈퍼리어, 그린드힐트호텔, 전남관광, 드림성모안과

담당자 | KLPGA 업무지원팀 주연수 사원(02-560-4427)

기타 | 1) 매월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 KLPGA뉴스 게시판에 공지

2) 사전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차후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3) 교육 전 취소사 발생 시 차순위자로 대체



하나카드

기간 | 2008년 ~

혜택 | KLPGA 플래티넘 카드 부가서비스

1) 연회비 : 신규 발급 시 초년도 10만 원, 이후 2년 차부터 연회비 평생 면제

2) 3개월 무이자 할부 : 할부 가능한 전기맹점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3) 공항 리운지 무료 이용 (PriorityPassCard 발급)

- 플래티넘 카드에 한해 본인/가족 카드 자동 발급

4) 인천공항 허브 라운지 할인 서비스 : 플래티넘카드 소지 고객 본인 20% 할인

5) 여행상품 할인서비스 (지정 예약처 : 02-714-3434)

- 국제선 항공권 7%, 국내선 5%, 해외패키지 7% 할인

6) 발레파킹 : 인천공항 월 3회(주차비 별도), 특급호텔 월 3회(1일 3시간 무료주차)

7) 특급호텔 : 10~30% 할인 서비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롯데호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등)

8) S-OIL 리터당 50원 할인(LPG제외), 횡수 무제한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교환시 할인(2인5천 원)

9) 영화 할인 서비스(통합 월 1회) : CGV, 메가박스,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10) 놀이공원 할인 서비스(통합 연 4회) :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롯데월드, 대전점rollercoaster 등

11) 보험 : 해외여행 최고 5억 원, 휴일교통상해보험 최고 7천5백만 원

담당자 | 하나카드 플래티넘 고객센터 | 연락처 | 080-220-5300

※ 2014년 6월 1일 신규 발급부터는

캐시백 적립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차년도부터는 면제됩니다.

※ 하나카드 신규 발급 시에만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며, 기존에 하나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 중

KLPGA 플래티넘 카드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세무법인 다현

기간 | 2016년 12월 1일 ~

혜택 | KLPGA 회원 및 가족을 위한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 세무조사 지원,

이의신청 등 불법청구, 기장대행 및 세무컨설팅, 법인, 부가, 소득,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대행 및 상담

문의 | 김기성 세무사 | 연락처 | 02-516-7745

투어, 꿈을 향한 도전

◆2016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종료시점

대상포인트

KLPGA TOUR *Ballantine's* | 발렌타인 대상포인트 KLPGA POINT

순위	이름	포인트
1	김효주	50
2	장하나	32
2	임은빈	32
4	박성원	26
4	김민지5	26

상금순위



순위	이름	상금
1	김효주	130,570,000
2	임은빈	63,652,875
2	장하나	63,652,875
4	Feng Shanshan	32,642,500
5	박성원	24,481,875



03 March	04 April	05 May	06 June	07 July	08 August	09 September	10 October	11 November	12 December										
<p>10 ~13</p> <p>World Ladies Championship 2016 일정: 3월 10일 ~ 13일 장소: 중국 미션힐스 동관 총상금: 70만불 우승자: 이정민(BC카드)</p>	<p>7 ~10</p> <p>제9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일정: 4월 7일 ~ 10일 장소: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장수연(롯데)</p>	<p>6 ~8</p> <p>제3회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 일정: 5월 6일 ~ 8일 장소: 군산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김해림(롯데)</p>	<p>3 ~5</p> <p>제6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일정: 6월 3일 ~ 5일 장소: 롯데스카이힐 제주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박성원(금성침대)</p>	<p>1 ~3</p> <p>금호타이어 여자오픈 일정: 7월 1일 ~ 3일 장소: 웨이하이 포인터 중국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민영(한화)</p>	<p>5 ~7</p> <p>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일정: 8월 5일 ~ 8월 7일 장소: 오라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박성원(넵스)</p>	<p>1 ~4</p> <p>한화금융 클래식 2016 일정: 9월 1일 ~ 4일 장소: 골든베이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박성원(넵스)</p>	<p>6 ~9</p> <p>제17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일정: 10월 6일 ~ 9일 장소: 블루해리언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고진영(넵스)</p>	<p>4 ~6</p> <p>팬텀 클래식 With YTN 일정: 11월 4일 ~ 6일 장소: 88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홍진주(대방건설)</p>	<p>2 ~4</p> <p>더링크 presented by 코와 일정: 12월 2일 ~ 4일 장소: 미요시컨트리클럽 총상금: 1억 엔 우승팀: KLPGA</p>										
<p>25 ~27</p> <p>The Dalat at 1200 Ladies Championship 일정: 3월 25일 ~ 27일 장소: Dalat at 1200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조정민(문명그룹)</p>	<p>15 ~17</p> <p>삼천리 Together Open 2016 일정: 4월 15일 ~ 17일 장소: 아일랜드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박성원(넵스)</p>	<p>13 ~15</p> <p>2016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정: 5월 13일 ~ 15일 장소: 수원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장수연(롯데)</p>	<p>10 ~12</p> <p>제10회 S-OIL 챔피언십 인비테이셔널 일정: 6월 10일 ~ 12일 장소: 엘리시안 제주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박지영(CJ 오쇼핑)</p>	<p>8 ~10</p> <p>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 일정: 7월 8일 ~ 10일 장소: 버지힐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소영(롯데)</p>	<p>8 ~11</p> <p>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 일정: 9월 8일 ~ 11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배선우(삼천리)</p>	<p>8 ~11</p> <p>이수그룹 제38회 KLPGA 챔피언십 일정: 9월 8일 ~ 11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배선우(삼천리)</p>	<p>13 ~16</p> <p>LPGA KEB Hana Bank Championship 일정: 10월 13일 ~ 16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200만 불 우승자: Carlota Ciganda</p>	<p>11 ~13</p> <p>ADT캡스 챔피언십 2016 일정: 11월 11일 ~ 13일 장소: 사우스프링스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조윤지(NH투자증권)</p>	<p>16 ~18</p> <p>2016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일정: 12월 16일 ~ 18일 장소: 사자호 GC 총상금: 55만 불 우승자: 김효주(롯데)</p>										
<p>22 ~24</p> <p>백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스 2016 일정: 4월 22일 ~ 24일 장소: 가야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박성원(넵스)</p>	<p>19 ~22</p> <p>2016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일정: 5월 19일 ~ 22일 장소: 라데나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박성원(넵스)</p>	<p>16 ~19</p> <p>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일정: 6월 16일 ~ 19일 장소: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 안시현(골든블루)</p>	<p>14 ~17</p> <p>BMW Ladies Championship 2016 일정: 7월 14일 ~ 17일 장소: 스카이 72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고진영(넵스)</p>	<p>19 ~21</p> <p>BOGNER MBN 여자오픈 일정: 8월 19일 ~ 21일 장소: 더스타휴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박성원(넵스)</p>	<p>19 ~21</p> <p>BOGNER MBN 여자오픈 일정: 8월 19일 ~ 21일 장소: 더스타휴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박성원(넵스)</p>	<p>20 ~23</p> <p>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일정: 10월 20일 ~ 23일 장소: 레이크우드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김해림(롯데)</p>	<p>19 ~20</p> <p>2016 LF포인트 왕중왕전 일정: 11월 19일 ~ 20일 장소: JNJ 골프 리조트 총상금: 1억 7천만 원 우승자: 이승현(NH투자증권)</p>	<p>25 ~27</p> <p>제6회 KG · 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일정: 4월 29일 ~ 5월 1일 장소: 씨네포인트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고진영(넵스)</p>	<p>27 ~29</p> <p>더 채리티 오픈 일정: 5월 27일 ~ 29일 장소: 워너스프링스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배선우(삼천리)</p>	<p>23 ~26</p> <p>비싸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16 일정: 6월 23일 ~ 26일 장소: 아일랜드 총상금: 7억 원 우승자: 오지현(KB금융그룹)</p>	<p>22 ~24</p> <p>MY 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2016 일정: 7월 22일 ~ 24일 장소: 서원밸리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승현(NH투자증권)</p>	<p>23 ~25</p> <p>미래에셋대우 CLASSIC 2016 일정: 9월 23일 ~ 25일 장소: 엘리시안 강촌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양채린(교촌 F&B)</p>	<p>25 ~28</p> <p>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일정: 8월 25일 ~ 28일 장소: 하이원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김예진(요진건설산업)</p>	<p>25 ~28</p> <p>2016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일정: 8월 25일 ~ 28일 장소: 하이원 총상금: 8억 원 우승자: 김예진(요진건설산업)</p>	<p>29 ~31</p> <p>카이도 MBC PLUS 여자오픈 Presented By LIS 일정: 7월 29일 ~ 31일 장소: 인터불고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조정민(문명그룹)</p>	<p>29 ~31</p> <p>카이도 MBC PLUS 여자오픈 Presented By LIS 일정: 7월 29일 ~ 31일 장소: 인터불고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조정민(문명그룹)</p>	<p>30 ~10/2</p> <p>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일정: 9월 30일 ~ 10월 2일 장소: 솔모로 총상금: 6억 원 우승자: 김민선(CJ 오쇼핑)</p>	<p>28 ~30</p> <p>혼마골프 ·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일정: 10월 28일 ~ 30일 장소: 드림파크 총상금: 5억 원 우승자: 이승현(NH투자증권)</p>	<p>25 ~27</p> <p>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일정: 11월 15일 ~ 27일 장소: 동래베네스트 총상금: 10억 원 우승팀: LPGA</p>

평균타수			평균퍼팅			뜬텐 피니쉬율		
순위	이름	평균타수	순위	이름	평균퍼팅수	순위	이름	뜬텐 피니쉬율
1	김효주	70.00	1	Kusuma MEECHAI	27.00	1	김민선5	100.00
2	임은빈	70.67	2	김효주	28.67	1	김민지5	100.00
2	장하나	70.67	2	이정화2	28.67	1	김효주	100.00
4	Feng Shanshan	71.00	2	장하나	28.67	1	박성원	100.00
5	김민지5	72.00	2	홍진주	28.67	1	이소영	100.00

종료대회



MON	TUE	WED	THU	FRI	SAT	SUN
26	27	28	29	30	31	1
2	3 KLPGA 동계 봉사활동 (11:00 송암동산)	4	5 KLPGA 동계 봉사활동 (10:00 신망원)	6	7	8
9	10 KLPGA 동계 봉사활동 (10:00 푸른초장복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KLPGA 회원과 함께하는 동계 봉사활동

함께의 의미를 배우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KLPGA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더 채리티 오픈에서 마련된 자선기금으로 회원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KLPGA 동계 자원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하고 어려운 환경의 이웃을 돌보는 뜻깊은 행사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1. 참여대상** :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KLPGA 전(全) 회원
- 2. 참여방법**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업무지원팀 차지해 사원에게 문의
* 참여 인원 : 각 기관별 10~15명(선착순)
- 3. 봉사활동 기관 및 내용**

No.	후원 기관		방문 일정	주소	활동 안(案)
	기관명	인원			
1	송암동산	57명	01.03(화)11시	경기 시흥시 월곶동 산55-3	환경정리
2	신망원	53명	01.05(목)10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새해맞이행사
3	푸른초장복지	41명	01.10(화)10시	서울 강서구 양천로30길 14 3층	산책

4. 문의사항 : 업무지원팀 차지해 사원 (02-560-4422 / chajh@klpga.com / 010-5034-4302)

KLPGA 회원진로서비스(인·적성/직무능력검사) 안내

- 1. 검사목적** : 인·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통해 개인의 인성특성, 업무태도, 적성 및 흥미, 직무능력이 종합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검사결과를 통해 진로적성 파악 및 인생설계에 도움을 줌
- 2. 검사형태**
 - 가. 검사방법 : KLPGA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하여 검사 진행
 - 나. 검사시간 : 총 110분 (인·적성 검사 : 298문항, 직무능력 검사 : 70문항)
- 3. 검사비용** : KLPGA 전 회원 무료(검사비 + 해설비)
- 4. 검사결과**
 - 가. 1주일 내로 개별 이메일 발송(KMA에서 전달)
 - 나. KMA로 연락 시, 결과 해석 및 개별 상담 가능
- 5. 참가신청 방법** : KLPGA 홈페이지 방문
 - 가. 홈페이지 정보센터 → 회원혜택 → 교육서비스에서 공지 확인 후 교육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 나. 개별적으로 검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다. 홈페이지 검사사이트 링크 → www.klpga.kma.or.kr 접속 후 발급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검사 진행
- 6. 기타 문의사항** : 업무지원팀 주연수 사원 (jys821@klpga.com / 010-7102-1873)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KLPGA팀 캡틴으로 신지애 선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12월 2일(금)부터 사흘간 열리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의 KLPGA팀 캡틴으로 신지애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수단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캡틴에 선발된 신지애는 KLPGA 20승, USLPGA 11승, JLPGA 13승 등 각 투어에서 대기록을 달성했고, 현재 JLPGA투어에서 막바지 상금왕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신지애는 "국가대항전에 참가할 때마다 대부분 막내였는데 어느덧 캡틴이 되었다

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책임감이 어깨가 무겁지만, 지금껏 참가한 대항전에서 캡틴을 맡았던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지애는 "1, 2라운드에는 포섬 플레이와 포볼 플레이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싱글 매치플레이의 경우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서 걱정은 안 되지만 좋은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조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지애는 "다양한 투어 경험으로 각 투어의 출전 선수를 대부분 알고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나 이미 검증됐지만 아직 해외투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면도 있어 전략적으로 팀을 구성할 것이다. 또한, 12월인 만큼 어떤 선수도 부상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KLPGA에서는 캡틴 신지애를 비롯해 고진영, 장수연, 배선우 등의 실력파 선수들이 선발됐으며, 참가 예정이었던 박성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매 대회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며 상금순위 10위로 시즌을 마친 정희원이 참가하게 됐다. JLPGA에서는 류 리츠코, 기쿠치 에리카, 오야마 시호 등이 출전하며, LET에서는 LET투어 19승, USLPGA투어 3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선수 트리시 존슨을 필두로 카트리나 매튜가 2년 연속 출사표를 던졌다. ALPGA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레이첼 해더링턴이 캡틴으로 팀을 이끌어 각 투어의 자존심을 내건 불꽃 튀는 경쟁을 예고했다.

한편, 본대회의 상금 총액은 1억 엔(한화 약 10억 원)이며 1라운드 포섬 매치플레이, 2라운드 포볼 매치플레이를 통해 포인트를 많이 쌓은 상위 두 팀이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 결정전을, 하위 두 팀이 3,4위전을 치르는 형식으로 치러져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LPGAT팀, KLPGA 팀에 역전 우승

여자골프 이벤트 대회인 챔피언스트로피에서 미국 LPGA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이 국내 KLPGA 팀에 역전극을 펼치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LPGAT팀은 부산 동래 베네스트골프장에



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싱글 매치 플레이 12경기에서 8승 4패로 앞서 최종 승점 13대 11로 역전 우승했습니다. LPGAT팀은 우승 상금 6억 5천만 원, KLPGA팀은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첫날부터 밀린 끝에 한 번도 앞서보지 못하고 14대 10으로 완패를 당했던 KLPGA팀은 올해 대회에서는 이틀째까지 우위를 지키는 등 1년 만에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제까지 포볼과 포섬 매치플레이 경기에서 7대 5로 뒤졌던 LPGAT팀은 싱글 매치에서 KLPGA 선수들을 압도했습니다. 양희영과 이미림, 허미정, 이미향이 먼저 4승을 올리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LPGAT팀 주장인 지은희가 배선우를 누르며 10대 10으로 기어이 동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선 포섬과 포볼 매치플레이에서 모두 승리를 차지했던 최운정이 김민선을 제압하면서 역전에 성공하더니 김효주와 김세영이 각각 오지현과 이승현에 승리를 거둬 KLPGA 고진영이 승리하며 1점을 더하는데 그친 KLPGA팀은 13대 11로 제압했습니다.

각각 3승씩 따낸 LPGAT팀 최운정과 KLPGA팀 고진영은 팀마다 한 명씩 뽑는 최우수선수에 선정돼 1천만 원짜리 고급 시계를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기사제공 - SBS 하성룡 기자)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한국, 일본 꺾고 첫 우승

여자골프 4개 투어 대항전인 '더 퀸즈'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LPGA팀은 일본 나고야 미요시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1대 1 매치플레이로 치러진 일본과 결승전에서 8경기 가운데 7경기를 승리하고 1경기를 비겨 7승 1무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주장 신지애를 비롯해 김민선, 김해림, 장수연, 고진영, 조정민, 배선우가 승리를 거뒀고, 이승현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첫 대회에서 간발의 차이로 일본에 우승컵을 내줬던 우리 팀은 1년 만에 멋진 설욕에 성공했습니다.

'더 퀸즈'의 모태가 된 한일 대항전에서 12년 동안 7승2무3패로 앞섰던 한국여



를 물리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기사 제공 - SBS 서대원 기자)

자골프는 다시 한 번 일본에 우위를 입증하며 4천5백만 엔, 우리 돈 약 4억 6천만 원의 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3-4위 전에서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가 호주여자프로골프투어(ALPG)

꿈의 무대, 꿈의 시상식, 2016 KLPGA 대상시상식 성료!

수많은 골프팬의 큰 사랑을 받았던 2016 KLPGA 투어를 마무리하는 '2016 KLPGA 대상시상식'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스폰서 및 후원사, 언론사, KLPGA 소속 선수 등이 참석해 시상식을 화



려하게 수놓았고 SBS 대표 아나운서인 김환, 장예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먼저 올 한해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관계자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한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는 'KLPGA 공로상'이 시상됐고, KLPGA 대회를 5년 이상 꾸준히 개최해 투어발전 및 골프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한 관계자에 'KLPGA 투어 공로상'이 시상됐다. 이어 KLPGA 챔피언스 투어 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한 정일미(44, 호서대학교)와 드림투어 상금왕 배소현(23)의 수상을 끝으로 1부가 마무리됐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KLPGA 공식 중계방송사인 SBS 골프채널을 통해 '2016 KLPGA 대상시상식' 2부가 생중계로 진행됐다.

KLPGA의 역사와 성과가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시작을 알린 '2016 KLPGA 대상시상식' 2부에서는 본격적인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 시즌 국내투어 7승을 기록하고 각종 기록을 갈아 치우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박성현(23, 넵스)이 KLPGA 티업비전 상금왕을 비롯해 다승왕, 최저타수상, 인기상 등 4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화려하게 빛났다. 영광의 2016 KLPGA 발렌타인 대상은 시즌 마지막까지 박성현과 치열한 포인트 경쟁을 펼친 고진영(21, 넵스)이 그 주인공이 됐다. 고진영은 메이저 대회 1승을 포함해 시즌 3승을 거두고 출전한 대회마다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발렌타인 대상포인트를 차근차근 모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올 시즌 대상만큼이나 뜨거운 격전지였던 NH투자증권 신인상 부문에서는 우승은 없지만 매 대회 꾸준하게 활약한 이정은(20, 토니모리)가 생애 한번인 영광을 안았다.

2009년부터 신설되어 생애 최초로 우승을 거둔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KLPGA

위너스 클럽에는 역대 최다 인원이 가입했다. 2016시즌에는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열린 '더 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조정민(22, 문영그룹)을 시작으로 장수연(22, 롯데), 김해림(27, 롯데), 배선우(22, 삼천리), 박성원(23, 금성침대), 박지영(20, CJ오쇼핑), 이소영(19, 롯데), 김예진(21, 요진건설), 양채린(21, 교촌F&B)까지 총 9명의 생애 첫 우승자가 배출됐다.

한편, 116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인비(28, KB금융그룹)와 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올 시즌을 끝으로 길었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박세리(39, 하나금융그룹)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기념주화와 핸드 프린팅 등이 수여됐다. 해외 특별상에는 올해 USLPGA에 데뷔해 역대 두 번째로 신인상과 베어트로피(평균타수)를 동시에 수상하고, 남녀 통틀어 메이저 대회 최저타수 우승을 기록해 세계를 놀라게 한 전인지(22, 하이트진로)가 수상자로 선정됐고, 2016 KLPGA 투어에서 1승 이상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국내 특별상은 안시현(32, 골든블루), 오지현(20, KB금융그룹), 이승현(25, NH투자증권), 김민선(21, CJ오쇼핑), 홍진주(33, 대방건설), 조윤지(25, NH투자증권) 등 총 6명이 상을 받았다.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드림위드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한 자선기금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에는 선수 34명의 버디적립금 21,892,000원과 함께 SBS 버디적립금 112,600,000원과 KLPGA 자선기금 28,108,000원을 통해 총 162,600,000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드림위드버디'에 직접 참여한 선수 중 KLPGA 선수분과위원장인 홍진주가 대표로 전달한 기금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축하공연에는 가수 홍진영이 참석해 감격하고 발랄한 목소리로 최고의 순간을 축하했다. 이로써 2016 KLPGA투어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KLPGA, 골프유망주 레슨 프로그램 진행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11월 16일(수), 함평골프고등학교와 함께 골프 유망주 레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와 우수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 마련된 본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함평에 위치한 함평골프고등학교에서 골프특기생 약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시즌 나란히 2승씩을 기록하며 KLPGA투어의 흥행에 앞장선 김해림(27, 롯데), 배선우(22, 삼천리), 장수연(22, 롯데)과 함께 지난 시즌 1승을 기록하고 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린 하민송(20, 롯데)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들 중 장수연과 하민송은 함평골프고 출신으로서 골프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직접 스윙 및 골프 기본 상식을 가르쳐 주며 친목을 다졌다.

장수연은 “졸업하고 나서 3년 만에 처음 학교에 돌아와서 감회가 새로웠다. 후배들을 만나서 골프와 진로 얘기도 하고 레슨도 해주면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됐던 것 같다. 즐거운 것도 많았고, 서로가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기부천사'로 불리는 김해림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상금뿐만 아니라 재능까지 기부하며 유망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해림은 “생각보다 더 좋았던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처음 골프 시작할 때 생각도 많이 났다. 재능기부는 이번이 처음인데, 직접 와서 마주 보며 기부를 한다는 것이 더욱 뜻깊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진우(19, 함평골프고3)는 “TV에서 보던 선수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동생처럼 편하게 해줘서 정말 좋았다. 프로로서의 인성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모두 배울 것이 많았는데, 나 역시 유명한 선수가 돼서 모교에 찾아와 후배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포부를 밝혔다.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전인지, 장수연, 하민송 등 KLPGA 투어의 걸출한 스타를 배출해내는 함평골프고등학교와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만들게 돼서 기쁘다. 프로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레슨을 집중력 있게 듣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골프 유망주들을 위해 유익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한국 골프 저변 확대 및 유망주 육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한편, KLPGA는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등 대회 개최는 물론, 골프 키즈캠프, 유소년 골퍼 멘토링, 골프 환경 조성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골프 꿈나무와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한 유소년 골프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KLPGA 2017 현대솔라고CC 점프투어 조인식 개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11월 21일(월) 충남 태안에 위치한 현대솔라고 컨트리클럽에서 'KLPGA 2017 현대솔라고 점프투어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솔라고 컨트리클럽(36홀, 충청남도 태안)은 내년도 점프투어 4개 차전을 개최하며 대회당 상금이 3천만 원, 4개 대회 총상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처음으로 KLPGA를 후원하게 된 솔라고 컨트리클럽 박경재 회장은 “솔라고 골프장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명문 코스로서 우수한 프로 선수의 발굴과 건전하고 즐거운 골프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KLPGA 점프투어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대회 개최를 통해 골프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골프장인 솔라고 컨트리클럽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KLPGA투어의 초석인 점프투어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를 이끌어 나갈

스타플레이어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KLPGA도 훌륭한 대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KLPGA TO YOU'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KLPGA, 지세포 중학교에서 골프연습장 준공식 가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11월 24일(목),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지세포 중학교에서 골프 연습장 준공식을 가졌다. KLPGA는 골프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지난해부터 'KLPGA TO YOU' KLPGA 골프 환경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다섯 개의 타석을 갖춘 골프 연습장을 지세포 중학교에 지원했다. 완공된 골프연습장 준공식에는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을 비롯, 지세포 중학교 이승열 교장, 교감 및 학교운영위원장, 학생, 동문회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세포 중학교 이승열 교장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신 KLPGA의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골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 방과후 교실 등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 이 연습 시설과 용품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KLPGA 강춘자 수석부회장은 “골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을 위해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 완공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에 흥미를 갖길 바라며, 훌륭한 골프 선수로 성장할 발전을 마련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KLPGA는 연습타석 외에 골프 연습공 1천개, 클럽 풀세트 3세트, 연습용 클럽 10개를 추가적으로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다. KLPGA는 회장배 여자아마골프 선수권대회, KLPGA-삼천리 꿈나무대회, 전국여자아마골프 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KLPGA 골프키즈캠프, 유소년 멘토링 등을 진행하며 유소년 육성과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KLPGA] 선수분과위원회, 노인과 여학생들을 위한 기부 물품 전달식 가져

치열했던 KLPGA 2016시즌을 끝내고 짧은 휴식기를 맞은 KLPGA의 선수분과위원회(위원장 홍진주)가 11월 29일(화) 오후, 경북 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지역 교육복지실무자협회를 방문해 여러 가지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KLPGA 선수를 대표해 선수분과위원회 위원장인 홍진주(33, 대방건설)를 비롯, 홍란(30, 삼천리), 박서영(31, 삼우건설), 김자영(25, LG), 변현민(26, AB&I)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 물품을 마련해 본 행사를 마련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먼저 경북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겨울 동안 먹을 감장김치를 전달했고, 그 후 교육복지실무자협회에는 여성용품을 전달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KLPGA 선수분과위원회는 지난 2012년 여름부터 자발적으로 영아원을 방문하거나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홍진주는 “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항상 주변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모든 선수를 대표해 선수분과에서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KLPGA 모든 선수의 뜻과 마음을 담은 기부물품을 직접 전달하게 돼서 영광이고 같이 참석한 위원들도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물품 기부에 같이 뜻을 모아준 모든 선수에게 고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KLPGA는 올겨울에도 '2016년 제8대 KLPGA 홍보모델'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선수들과 함께 다양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가지며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KLPGA 선수분과위원회는 지난 2012년 여름부터 자발적으로 영아원을 방문하거나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홍진주는 “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항상 주변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모든 선수를 대표해 선수분과에서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KLPGA 모든 선수의 뜻과 마음을 담은 기부물품을 직접 전달하게 돼서 영광이고 같이 참석한 위원들도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물품 기부에 같이 뜻을 모아준 모든 선수에게 고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KLPGA는 올겨울에도 '2016년 제8대 KLPGA 홍보모델'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선수들과 함께 다양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가지며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6 KLPGA 동계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시간 가져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12월 14일(수), 남양주외국인근로복지센터에서 첫 번째 '2016 KLPGA 동계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KLPGA 김경자 전무이사과 소속 선수 4명(김명희, 장수연, 임연정, 박은수), 사무국 직원 4명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남양주외국인근로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눔도시락'을 통해 도시락 담기와 도시락 전달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는 이날 봉사를 통해, 점심 식사를 할 수 없는 마석기구공단 근방 결식아동 200여 명에 도시락을 전달하며 따뜻한 관심의 손길을 전했다.

올 시즌 KLPGA투어에서 활약한 장수연은 봉사활동 참여 계기에 대해 “항상 연말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올해는 꼭 해보고 싶어 신청했다”고 밝힌 뒤,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미안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에 자주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사활동과 더불어 KLPGA투어 '더 캐리티 오픈'을 통해 조성된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의 겨울 점퍼와 후원금이 남양주외국인근로복지센터에 전달됐다. KLPGA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KLPGA 동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동계기간에 다섯 차례의 봉사활동을 추가로 시행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6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김효주, 대회 3번째 우승 '새 시즌 힘찬 출발'



KLPGA투어 2017년 시즌 개막전인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서 김효주가 정상에 오르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효주는 중국 광저우의 사차후 골프장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공동 2위인 장하나와 임은빈을 2타 차로 따돌리며 우승했습니다. 김효주의 세 번째 현대차 오픈 우승입니다. KLPGA투어와 중국여자프로골프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이 대회에서 김효주는 2012년과 2014년에도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또, KLPGA투어에서 통산 9승을 거뒀는데 이 가운데 5승을 중국 골프장에서 따내 중국 강자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김효주는 단독 선두로 출발하며 우승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승컵을 들어올리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위로 출발한 장하나가 전반 9홀까지 버디 5개를 잡아내며 한때 김효주를 2타 차로 밀어내고 선두 자리를 꿰찼었습니다. 전반 버디 2개로 2타를 줄였던 김효주는 13번홀(파4)에서 버디를 적어내며 반등 기회를 잡았습니다. 같은 시기 14번홀(파3)을 돌던 장나는 두 번째 샷이 벙커에 빠지면서 더블보기를 기록, 김효주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내려갔습니다. 김효주는 15번홀(파5)과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고 18번홀(파4)을 파로 막으며 선두를 굳혔습니다.

K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김효주는 올해 시즌 첫 대회인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우승을 거두며 기대를 높였으나 추가 우승을 올리지 못해 다소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마지막 대회이자 내년 시즌 첫 대회인 현대차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유종의 미와 힘찬 출발을 동시에 이뤘습니다. 2013년 이 대회 우승자인 장나는 4언더파 68타, 최종합계 4언더파 212타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임은빈도 통타를 적어내며 장하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중국 여자골프의 간판 평산산은 최종합계 3언더파 213타로 단독 4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사제공 - SBS 정희돈 기자)



KLPGA 공식 사진기자인 박준석 사진기자가 직접 선정한 2016 KLPGA투어 베스트 포토입니다.

사진_KLPGA 공식사진기자 박준석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공식 기자회견중인 KLPGA팀과 LPGA팀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우승 트로피 앞에서 우승 세리머니하는 LPGA팀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박인비와 이정민이 트로피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박인비, 이정민



지은희와 허미정, 1번홀 그린을 바라보고 있다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지은희, 허미정



배선우가 5번홀 티샷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배선우

최운정이 2번홀 승리 후 이미향과 기념하고 있다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최운정, 이미향



2R 속전하지 않은 김해림이 선수들을 따라다니며 응원하고 있다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김해림



우승 확정 후 기뻐하는 신지애, 김해림, 장수연, 정희원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우승 트로피를 받는 KLPGA 팀 주장 신지애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KLPGA, 역전의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간 일본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에서 KLPGA 대표팀이 우승을 일궈냈다. 이번 대회는 KLPGA를 비롯해 JLPGA, LET, ALPG 등 4개의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각 투어의 자존심이 걸린 투어대항전, 그 생생한 대회 현장 속을 따라가 본다.



두근두근, 조 편성 발표!

KLPGA는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대회에 앞서 1라운드 포섬 매치플레이의 조 편성을 발표했다. 각 투어에서 2명씩 한 조를 이뤄 총 4조(8명)가 대결을 펼친 이번 대회의 1라운드는 '포섬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선수들은 약 1시간 동안 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장이자 만연인 신지애를 비롯한 8명의 선수는 서로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승점 2점을 따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1라운드의 조를 편성했다. KLPGA 선수들이 조 편성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심리적 안정감'이었다. 지난주 이벤트 대회로 열린 'ING생명 챔피언스 트로피'에서 함께 경기하며 호흡을 맞춰 봤던 선수들은 팀 매치인 만큼 실수를 해도 서로 이해하고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수끼리 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포섬 경기 방식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선수가 한 조가 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 조를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2016시즌에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하고 뒤이어 우승을 보태 시즌 2승을 달성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장수연과 시즌 1승, 통산 3승을 기록 중인 KLPGA 대표 장타자 김민선5가 한 조가 되어 공격

적인 스타일의 골프로 ALPG(호주여자프로골프)에 맞섰다. JLPGA(일본여자프로골프)와 대결할 조는 2016 KLPGA 대상을 받게 된 시즌 3승, 통산 7승의 고진영과 KLPGA의 주장이자 생애 투어 통산 44승 (KLPGA 20승, USLPGA 11승, JLPGA 13승)을 기록 중인 골프지존 신지애가 나섰다. 또한, 세 번째 조는 수비형 골퍼들이 뭉쳤다. 안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하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배선우와 정희원이 한 조를 이뤄 LET(유럽여자프로골프)를 대표할 선수들과 실력을 겨뤘다. 조 추첨을 통해 상대 투어가 결정된 마지막 조에는 올해 나란히 2승씩을 기록하고 시즌 내내 꾸준한 모습으로 골프팬에 즐거움을 선사했던 KLPGA 기부천사 김해림과 퍼트의 달인 이승현이 한 팀을 이뤘다. 더 퀸즈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대표 추첨 방식이다. 각 투어 세 조가 한 번씩 대결하고 남은 한 조의 상대는 추첨을 통해 정한다는 것이 이번 대회의 색다른 점이다. 1라운드 남은 한 조의 상대를 정하기 위해 각 4개 투어 사무국에서 조 추첨식에 참가했으며 조 추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대회 본부는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적힌 골프공을 준비했고, 추첨 순서를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알파벳순(ALPG-JLPGA-KLPGA-LET)으로

공을 뽑았다. 그 결과 KLPGA, ALPG, LET, JLPGA의 순서로 추첨을 진행하여 LET와 JLPGA, KLPGA와 ALPG의 경기가 1라운드 마지막 두 조를 장식하게 됐다. 대회 1라운드에 앞서 KLPGA의 첫 조인 김민선5·장수연 조는 ALPGA의 노랑 레이첼 헤더링턴·휘트니 힐리어를 상대로, 두 번째 조의 고진영·신지애는 JLPGA의 베테랑 오야마 시호·스즈키 아이 조와 대결을 앞두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세 번째 조인 배선우·정희원은 누리아 이투리오스·이사벨 보이뉴와의 맞대결을, 마지막 조인 김해림·이승현은 ALPGA의 호주교포 오수현·사라 제인 스미스 상대로 꼭 이기겠다는 당찬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투어 대항전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회에 임할 생각이다"며 말문을 연 KLPGA 캡틴 신지애는 "선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도 좋고 단합도 잘 되고 있다고 느꼈다.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캡틴으로서 최대한 많이 도울 예정"이라며 "지난해 아쉽게 놓친 우승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국내외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1Round

포섬 매치플레이

KLPGA, 2승 2패로 공동 2위

포섬 매치플레이로 진행된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1라운드에서 KLPGA는 2승 2패를 기록해 승점 4점을 확보했다. 4전 전승을 거둔 JLPGA가 승점 8점으로 선두에 나섰고, LET는 KLPGA와 동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ALPG는 4전 전패로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다.

장수연·김민선5 조는 ALPG의 레이첼 헤더링턴·휘트니 힐리어를 상대로, 김해림·이승현은 오수현·사라 제인 스미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신지애·고진영 조는 JLPGA 오야마 시호·스즈키 아이 조와 맞붙어 아쉽게 1홀 차로 졌고, 배선우·정희원은 LET 누리아 이투리오스·이 자벨 보이노 조에 2홀차로 아쉬운 패배를 맛봤다.



KLPGA 전승으로 JLPGA와 결승전 행

같은 팀 선수 2명이 각자의 공으로 플레이하고, 더 좋은 스코어를 팀 스코어로 채택하는 포섬 매치플레이로 진행된 2라운드에선 KLPGA가 독보적으로 우세했다. 가장 먼저 나선 신지애·김민선5 조는 JLPGA의 오야마 시호·스즈키 아이를 2홀 남기고 4홀차로 제압했다. 두 번째로 나선 조정민·고진영 조는 LET의 베키 모건·누리아 이투리오스 조를 상대로 2홀차 승리를 거뒀고, 정희원·배선우 조는 ALPG의 스테이시 키팅·카트린 비스토 조를 3홀차로 이겼다. 마지막 조인 장수연·이승현은 JLPGA의 기쿠치 에리카·와타나베 아야카 조를 상대로 2홀차로 가뿐히 승리를 거뒀다.

4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며 승점 8점을 추가한 KLPGA는 합계 12점으로 JLPGA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1라운드에서 4전 전승을 거뒀던 JLPGA는 2라운드에서 1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승점 11점에 머물러 2위를 기록했고, LET가 승점 7점으로 3위, ALPG는 1승으로 승점 2점에 그쳤다.



2Round

포섬 매치플레이



KLPGA, 일본 꺾고 첫 우승!

2라운드 선두로 JLPGA와 결승을 치르게 된 KLPGA 대표팀은 우승을 향해 굳은 의지를 모았다. 최종라운드에서는 1대1 싱글 매치플레이로 승부를 갈랐다. 8경기 가운데 7경기를 신지애, 김민선5, 김해림, 장수연, 고진영, 조정민, 배선우가 승리로 이끌었고 이승현이 무승부를 기록하며 JLPGA를 꺾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간발의 차로 아쉽게 패배했던 KLPGA는 설움을 딛고 여자골프의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이로써 JLPGA는 2위, 3-4위전에서 승리를 거둔 LET가 3위, ALPG는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주장 신지애는 우승 인터뷰에서 "개인전과는 다른 느낌의 우승이었고, 팀이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웠다"며 "지난해 접전 끝에 준우승했는데 올해는 좋은 플레이로 후회 없는 경기 만들어내서 기분이 좋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환상의 팀워크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KLPGA는 우승상금으로 4천 5백만 엔(약 4억 6천만 원)을 획득했다.



3Round

싱글 매치플레이



THE QUEENS 우승상금 일부 봉사기관에 전달
presented by KOWA



'더퀸즈 presented by 코와' 대표팀 9명이 우승상금 중 1천만 원을 조성하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총상금액 1억 엔 중 우승팀이 지정한 기관에 선수 이름으로 기부되는 공식 상금 1백만 엔은 대회 개최지인 일본 내의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대표팀 선수들은 우승상금 일부로 1천만 원을 조성하여 한국 자살 유가족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대표팀은 지난 12월 23일,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통해 가족의 자살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의 심리치료와 생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꿈의 무대, 꿈의 시상식 2016 KLP6A 대상 시상식

대장정의 2016시즌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12월 6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린 대상 시상식에는 한 해 동안 KLP6A투어를 빛낸 선수들과 스폰서 및 후원사, 언론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화려한 골프인들의 밤

수많은 골프팬의 큰 사랑을 받았던 2016 KLP6A투어를 마무리하는 '2016 KLP6A 대상 시상식'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스폰서 및 후원사, 언론사, KLP6A 소속 선수 등이 참석해 시상식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SBS 대표 아나운서인 김환, 장예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먼저 올 한 해 한국여자프로골프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관계자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한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는 'KLP6A 공로상'을 시상했고, KLP6A 대회를 5년 이상 꾸준히 개최해 투어발전 및 골프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한 관계자에 'KLP6A투어 공로상'을 시상했다.

이어 KLP6A 챔피언스투어 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한 정일미(44, 호서대학교)와 드림투어 상금왕 배소현(23)의 수상을 끝으로 1부가 마무리됐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KLP6A 공식 중계방송사인 SBS 골프채널을 통해 '2016 KLP6A 대상 시상식' 2부가 생중계로 진행됐다.

Ceremony of AWARDING Grand Prize



KLPGA의 역사와 성과가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시작을 알린 '2016 KLPGA 대상 시상식' 2부에서는 본격적인 시상이 이어졌다. 올 시즌 국내투어 7승을 기록하고 각종 기록을 갈아 치우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박성현(23, 넵스)이 KLPGA 티업비전 상금왕을 비롯해 다승왕, 최저타수상, 인기상을 받아 4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화려하게 빛났다.

영광의 2016 KLPGA 발렌타인 대상은 시즌 마지막까지 박성현과 치열한 포인트 경쟁을 펼친 고진영(21, 넵스)이 그 주인공이 됐다. 고진영은 메이저 대회 1승을 포함해 시즌 3승을 거두고 출전한 대회마다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발렌타인 대상포인트를 차근차근 모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올 시즌 대상만큼이나 뜨거운 격전지였던 NH투자증권 신인상 부문에서는 우승은 없지만 매 대회 꾸준히 활약한 이정은(20, 토니모리)가 생애 한 번뿐인 영광을 안았다. 2009년부터 신설되어 생애 최초로 우승을 거둔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KLPGA 워너스 클럽에는 역대 최다 인원이 가입했다. 2016시즌에는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열린 '더 달랏 at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린 조정민(22, 문영그룹)을 시작으로 장수연(22, 롯데), 김해림(27, 롯데), 배선우(22, 삼천리), 박성원(23, 금성침대), 박지영(20, CJ오쇼핑), 이소영(19, 롯데), 김예진(21, 오진건설), 양채린(21, 교촌F&B)까지 총 9명의 생애 첫 우승자가 배출됐다.

116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인비(28, KB금융그룹)와 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올 시즌을 끝으로 길었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박세리(39, 하나금융그룹)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기념주화와 핸드 프린팅 등이 수여됐다.

—
2016시즌 KLPGA 대상의 주인공 고진영



—
상금왕, 다승왕, 최저타수상, 인기상 4관왕의 영예를 안은 박성현



—
좌)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을 수상한 이정은
우) 2016시즌 드림투어 상금왕 배소현



—
역대 최다 인원이 가입한 KLPGA 워너스클럽



—
좌) 2016시즌 챔피언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정일미
우) 해외특별상을 수상한 전인지

해외 특별상에는 올해 USLPGA에 데뷔해 역대 두 번째로 신인상과 베어트루피(평균타수)를 동시에 수상하고, 남녀 통틀어 메이저 대회 최저타수 우승을 기록해 세계를 놀라게 한 전인지(22, 하이트진로)가 수상자로 선정됐고, 2016 KLPGA 투어에서 1승 이상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국내 특별상은 안시현(32, 골든블루), 오지현(20, KB금융그룹), 이승현(25, NH투자증권), 김민선(21, CJ오쇼핑), 홍진주(33, 대방건설), 조윤지(25, NH투자증권) 등 총 6명이 상을 받았다.

이후,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드림위드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한 자선기금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에는 선수 34명의 버디적립금 21,892,000원과 함께 SBS 버디적립금 112,600,000원과 KLPGA 자선기금 28,108,000원을 통해 총 162,600,000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드림위드버디'에 직접 참여한 선수 중 KLPGA 선수분과 위원장인 홍진주가 대표로 전달한 기금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축하공연에는 가수 홍진영이 참석해 감쪽하고 발랄한 목소리로 최고의 순간을 축하했다. 이로써 2016 KLPGA투어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를 빛낸 박세리에게 수여된 2016 대상 시상식 특별상



116년 만에 부활한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특별상을 수상한 박인비

인기상 투표 결과

- 1위 박성현
- 1차 기자단 투표 720 + 2차 온라인 투표 651 = 1,371포인트
- 2위 고진영
- 1차 기자단 투표 200 + 2차 온라인 투표 192 = 392포인트
- 3위 김해림
- 1차 기자단 투표 150 + 2차 온라인 투표 164 = 314포인트

2016 KLPGA 대상 시상식 부문별 수상자

- KLPGA 상금왕 | 박성현
- KLPGA 대상 | 고진영
- KLPGA 인기상 | 박성현
- KLPGA 최저타수상 | 박성현
- KLPGA 다승왕 | 박성현
- KLPGA 위너스클럽 | 김예진, 김해림, 박성원, 박지영, 배선우, 양채린, 이소영, 장수연, 조정민
- KLPGA 국내특별상 | 안시현, 오지현, 이승현, 김민선5, 홍진주, 조윤지
- KLPGA 해외특별상 | 전인지
- 박인비 특별상 | 박인비
- 박세리 특별상 | 박세리
- KLPGA 신인상 | 이정은6

Ceremony of
AWARDING
Grand Prize



국내 특별상을 수상한 김민선5



위너스클럽에 가입된 김해림



위너스클럽에 가입된 박성원



상금왕, 인기상, 최저타수상, 다승왕을 수상한 박성현



2016 대상 시상식 특별상을 수상한 박세리



위너스클럽에 가입된 지난 시즌 신인상 수상자 박지영



위너스클럽에 가입된 배선우



국내특별상을 수상한 이승현



올시즌 신인상을 수상한 이정은6



위너스클럽에 가입된 장수연



시즌 마지막 대회의 우승으로 국내특별상을 수상한 조윤지



2017년을 바라는
소원 퍼즐을 맞춰라!

WISH PUZZLE

2016 KLPGA 대상 시상식장에서는
많은 선수의 새해 소망이 적힌 소원 퍼즐이 달렸다.
2017 정유년(丁酉年)을 환하게 밝힐 선수들의 소망을 공개한다.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2016년 동안에 많은 응원과 격려 덕에 감사해요.
2017년에는 KLPGA 선종 많이 사랑해주세요!
행복 부탁드릴게요!
S I O
L L O

2016년 개뿔한 연말 보내시길
2017년에는 좋은 일 가득하길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KLPGA
STX
화이팅!

이정은6

안녕하세요 배선우 프로입니다.
올해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하고 즐겁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되게요
역시 2017년!! 즐겁고 유쾌하게 경기 즐기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배선우

배선우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2016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덕분에 좋은 결과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KLPGA와 아산 LPGA 투어에서
안타깝지 않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KLPGA LPGA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12.6

박성현

고진영

안녕하세요. 고진영입니다.
2016년 정말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많은 사랑과 응원 덕에 2017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KLPGA와 아산 LPGA 투어에서
안타깝지 않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해림 프로입니다!!
올 해에 저들의 관심 덕분에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정유년 닭의 해라!! 합니다.
달걀만큼인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ㅎㅎ
2017년에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림

김해림

안녕하세요!
장수연 프로입니다.
올해에 많은 팬들과 사랑 보답하며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No.1 KLPGA 회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장수연

조정민

안녕하세요. 조정민 선수입니다.
올해 2016년 귀양히 roller constar 같은 한해
보냈는데요, 2017년에는 더욱 다이내믹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함께해요 KLPGA 회원들!
조정민

2017

PARK
JI
YOUNG

2017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박지영을 만나다



2015시즌, 인생에 한 번 밖에 없는 영광의 신인상을 수상한 박지영. 그는 지난 시즌 값진 생애 첫 우승컵을 차지하며 무관의 신인상이라는 설움을 한 번에 떨쳐버렸다. 2017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그가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7 KLPGA투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글 _ 김소현
사진 _ 강권신

“

신인상 수상 이후 '무관의 신인상'이라는 말들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간절히 바랐던 우승인 만큼 기분이 정말 좋아요.

”

“땡그랑” 짜릿했던 첫 우승의 기억

“한을 푸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시즌 6월 '제10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차지한 박지영. 2015시즌 신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지만, '무관의 신인상'이라는 꼬리표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2015시즌 정규투어에 데뷔한 그는 출전 두 대회 만에 3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골프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톱텐에 네 차례 들면서 꾸준한 성적으로 강인한 신인의 면모를 선보이며 2016시즌을 맞이했다. 때론 조금해지기도 했지만, 마음을 다스리며 차분히 우승을 기다렸다. “간절히 바랐던 만큼 기분이 정말 좋아요.”

1타차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나선 그는 어느 때보다도 매우 떨렸다. 공동 2위로 시작한 장수연의 매서운 추격에 공동 선두자리를 내주기까지 했다. “오히려 동타가 되면서 무덤덤해졌어요. 플레이에 좀 더 집중하지는 생각이 강했죠.” 12번홀에서는 보기를 범하며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우승의 기운은 그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16번홀. 그는 약 1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버디 찬스를 얻었다. 과감하게 퍼트를 시도했고 공은 핀에 맞아가 싶더니 홀을 한 바퀴 돌고 “땡그랑” 경쾌한 소리를 내며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그는 스코어를 벌리며 4타차로 값진 우승을 일궈냈다.

변화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2016시즌을 맞이하기 전, 박지영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바로 안경. 시력 교정수술로 오랫동안 착용한 안경을 벗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에 적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나 수술 후 눈부심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필드에 나서야하기에 상황에 빨리 적응해야만 했다. “안경 썼을 때보다 시야가 넓어졌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라운드를 해야 하니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반복된 훈련으로 상황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죠.”

변화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동계훈련 때 안성현 프로와 호흡을 맞추면서 전체적인 스윙 모션을 바꿨다. 기존에는 쇼트게임 위주로 연습했었다면, 이번에는 샷 스윙을 중점적으로 연습해 정확성을 높였다. “코스 매니지먼트에 도움이 됐어요. 공격이 필요할 땐 확실하게 공격 플레이를 주도하면서 스코어를 줄일 수 있었거든요.” 특히 같이 훈련했던 언니들은 선후배 관계를 떠나 그를 응원하며 조언 해줬고, 그 역시 자신보다 우수한 선배들의 플레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다. 박지영의 변화와 노력은 우승까지, 데뷔 2년 차 징크스가 무색할 정도로 활기찬 2016시즌을 가져다줬다.





박지영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이선희 노래를 좋아해요. 잔잔한 멜로디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이선희 노래는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담겨있답니다. 특히 '인연'이라는 노래는 대회 나가기 전 3, 4번 정도 반복해서 듣고 나설 정도로 좋아해요.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골프와 진정한 인연인가 봐요~

박지영 (Park Ji Young) / 朴知映
 생년월일 1996년 03월 02일
 입회연도 2014년 05월
 소속 CJ 오쇼핑
 정규투어 통산우승 1승
 제10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우승
 제3회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 4위
 2016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5위

골프가 만들어 준 소중한 선물들

2016시즌은 가장 행복했던 시즌이기도 했지만, 또 가장 힘들었던 시즌이었다고 그는 우승 직후 갑작스러운 팔꿈치 부상에 좋지 못한 컨디션으로 남은 대회에 출전해야만 했다. "재활치료와 병행하면서 대회에 임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저 자신이 너무 답답했죠. 아무리 연습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찰나, 중학교 2학년 때 골프를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가 마냥 좋아 시작했지만 어린 나이에 선수의 길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미래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다. 골프를 통해 목표가 생기고 이를 이뤄나가는 매력에 빠져 다시 골프채를 잡을 수 있었다. 그때처럼, 그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를 극복해 시즌을 마무리했다. "지금은 팔꿈치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하하." 가족들의 격려도 큰 활력이 됐다. 언제나 그의 뒤에서 일상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부모님 덕분에 온전히 투어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을 더했다. 대회장에서 살갑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 응원해주는 동갑내기 친구들도 빼놓을 수 없다. "주변 사람들 덕분에 투어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말로 건네진 못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이지요."

더욱 환하게 빛날 2017시즌!

2017시즌이 시작되기 전, 기회가 된다면 해외봉사활동을 꼭 하고 싶다는 박지영.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통해 봤던 아프리카, 미얀마 등지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언제나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얻은 것이 있으면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꼭 실천하려 합니다. 또 (김)해림 언니처럼 기회가 되면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겨울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에는 친구들과 스키장에 놀러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소소한 바람을 건넨 그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 스물하나다. "2017시즌에는 부상이 없도록 골프채를 잡기 전에 5분 정도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푸는 습관을 꼭 만들 거예요. 건강하게 2승을 달성하는 것도 목표고요. 꾸준히 잘해서 USLPGA투어에서 상금랭킹 1위도 해보고 싶어요."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 친근한 '따뜻한 선수'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처럼 그는 앞으로 자신이 그려나갈 미래를 꿈꾸며 차근차근 목표를 세워가고 있다. 매 시즌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는 박지영. 그가 펼쳐갈 활기찬 2017시즌을 힘차게 응원한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얻은 것이 있으면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해외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박지영
 박지영
 2017년도 많이 응원해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골프 여정은 지금부터

2017시즌 신인왕을 꿈꾸는 김수지

2016 드림투어 최종 상금순위 6위라는 짜릿한 순위로 2017 정규투어에 당당히 진출한 김수지. 그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2016시즌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2017시즌의 다짐도 들어보자.

글_ 김창미 사진_ 강권신



욕심은 버리고, 자신감은 채우고

지난 7월,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0차전과 8월에 펼쳐진 14차전에서 2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김수지. 이처럼 그는 2016 드림투어에서 우승의 기회를 몇 번이나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꾸준한 성적으로 최종 상금순위 6위라는 짜릿한 기록을 달성해 2017 정규투어로 직행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수지는 2016시즌 첫 우승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 2017 정규투어에 진출했다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한다.

지난 10월, 2016 드림투어 마지막 대회인 'KLPGA 2016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19차전 With LEXUS'에서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2017 정규투어 진출이 확정된 순간,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 "미안하고 고마운 부모님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다음으로 제게 도움을 많이 주신 송경서 프로님이 떠올랐어요." 송경서 프로는 그가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게 도와준 1등 공신이다. "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우승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자신감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송경서 프로님 덕분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묵묵하게 지켜봐준 박연태 프로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게 산다

운동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좋아했다는 김수지는 어려서부터 발레,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접했지만, 골프만큼 자신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운동은 없었다고 한다. 아홉 살이란 어린 나이에 골프채를 잡은 김수지는 또래들이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배울 때 몸과 마음을 수없이 단련하는 골프에 매진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연습장에 있는 시간이 마냥 좋았어요." 즐거웠던 만큼 힘든 적도 있었지만 늘 곁에서 자신을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김수지. 특히 어려울 때 함께 골프를 배웠던 두 살 터울 여동생이 가장 큰 힘이 돼주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동생에게 모두 털어놓곤 해요. 골프 선수의 고충을 잘 이해해주는 동생이 있어 정말 든든하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큰 선물일 것이다.

그의 더 멋진 모습을 위해 힘써주는 이들도 있다. "함께 투어생활을 한 최예지, 정희윤, 김소희, 한지수와 자매처럼 친해요." 이들은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동료 이상의 우정을 보여주며 서로에게 든든한 응원자가 돼준다.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듯이 늘 자신에게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김수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김수지 (Kim Su Ji) / 金秀芝

생년월일 1996년 10월 16일

입회연도 2014년 10월

2016 드림투어 상금순위 6위

·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0차전 2위

· KLPGA 2016 액티비아-백제CC 드림투어

Road to The evian Championship 14차전 2위

· KLPGA 2016 군산CC컵 드림투어 4차전 With LEXUS 3위

제 2의 박인비가 되고 싶다는 꿈

2017 정규투어에 진출했지만, 아직 스스로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수지.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 "자신 있는 퍼트는 더욱 완벽하게 강화하고 싶고, 다소 아쉬운 비거리 증가를 위해 체력훈련에 집중하고 싶어요." 김수지는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해 더욱 발전해나가고자 한다. "열심히 연습해 2017시즌에는 첫 우승도 이루고, 신인상도 수상하고 싶어요." 이렇듯 당당하게 따낸 정규투어에 임하는 그의 각오는 남다르다. "어릴 적엔 막연하게 매년 1등을 하는 타이거 우즈 선수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는 박인비 프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필드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박인비 선수가 그의 롤모델이란다.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대담한 플레이로 승부수를 띄우는 박인비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본받고 싶다고, "미래에는 저도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1등을 외칠 날이 올 수 있겠죠?(웃음)" 앞으로 정규투어에서, 더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힘차게 펼칠 그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해본다.

2016시즌 최고의 순간 - SBS골프 최고 시청률 BEST 5



2016시즌, 골프팬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대회는 무엇일까?
SBS골프 생중계 최종라운드 시청률을 기준으로
상위 Best 5를 뽑아봤다.

글_ 김소현 자료제공_ SBS골프



KB금융 스타챔피언십

2016시즌 골프팬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대회는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의 최종라운드였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만큼 국내외 실력파 선수들이 출전해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연출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이번 대회에는 US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이미향과 이미향, 디펜딩 챔피언 전인지를 비롯해 박성현, 김해림, 배선우, 장수연, 조정민, 이승현 등이 참가해 우승컵을 향한 총력전을 벌였다.

1라운드에는 김해림이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 단독 선두에 올랐다. 2라운드에는 이미향과 김해림이 나란히 중간합계 10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선두에 올랐고, 3라운드에는 박성현이 버디 8개를 몰아치며 이미향과 함께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나눴다.

최종라운드에서는 시즌 8승에 도전하는 박성현과 해외파 출신인 이미향의 거침없는 플레이, 지난 대회 때 아쉬운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던 김해림의 활약 등 볼거리가 많았다. 승부는 6번홀에서 갈렸다. 김해림이 샷이글에 성공하면서 선두를 달리던 박성현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정희원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공동 3위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정희원은 보기 1개와 버디 6개로 타수를 줄여나갔다. 전반전에서만 5언더파를 기록한 김해림이 후반전에서는 타수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정희원과 동타를 이뤄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다. 연장 첫 홀에서 김해림은 버디를 잡았고, 정희원은 파로 마무리하면서 우승은 김해림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김해림은 시즌 2승을 달성하며 시즌을 끝냈다.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BEST 2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시청률 순위 2위는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최종라운드였다. 이 대회는 지난해 30회를 맞이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권위 있는 메이저 대회로서 많은 골퍼가 우승을 꿈꾸는 대회다. 대회의 우승자는 상금 2억 5천만 원과 함께 자동차를 부상으로 받고, 다음년도 USLPGA투어 '기아 클래식'의 출전권도 얻기 때문에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1라운드에는 김해림과 김혜선2가 나란히 3언더파를 기록해 단독 선두로 나섰다. 2라운드에는 김해림이 단독 선두로 자리를 지켰다. 선두와 1타차로 이지현2와 김소이가 뒤를 이었고, 2타차로 배선우, 홍진주, 조정민, 이민영, 전종선 등 다수가 상위권에 포진돼 있어 3라운드에의 혼전을 예상케 했다. 3라운드에서는 정연주가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인 4언더파를 달성하며 경쟁 대열에 새롭게 등장했다. 결국 정연주는 이를 내내 선두자리를 유지했던 김해림을 앞서 단독 선두로 올랐다. 최종라운드에서 이번이 일어났다. 고난이도를 자랑하는 베어즈베스트 청라의 유럽 코스와 오스트랄아시아 코스에서 선수들은 타수를 줄이기 쉽지 않았다. 선두와 4타차, 공동 12위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안시현이 3언더파를 기록해 최종합계 이븐파를 달성하며 12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엄마골퍼'라고 불리는 안시현의 감격스러운 우승 장면이 많은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카이도 MBC플러스 여자오픈 Presented By LIS

시청률 순위 4위는 지난 시즌 처음 개최한 '카이도 MBC플러스 여자오픈 Presented By LIS' 최종라운드다. 2015년까지 KLPGA 드림투어를 후원했던 카이도 코리아가 정규투어로 무대를 옮겼고, MBC플러스는 'MBC 엑스캔버스 여자오픈'과 'MBC투어'를 개최했던 그룹사 MBC에서 바통을 넘겨받아 7년 만에 대회를 개최했다.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초대 챔피언 자리를 향한 경쟁이 치열했다. 더불어 30°C를 훌쩍 넘는 무더위와 언플레이션이 심한 고난이도 코스가 대결에 불을 지폈다.

1라운드에는 장수연의 거침없는 플레이가 돋보였다. 장수연은 두 번의 이글을 성공하며 선두에 올랐고, 정연주와 김지현2가 5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선두에 합류했다. 2라운드에선 조정민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공동 8위로 시작한 조정민은 보기 없이 7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최종라운드에서 선두로 나선 조정민의 출발은 조금 불안했다. 11번홀까지 버디 1개와 보기 3개로 2타를 잃으며 2위권인 홍란과 정슬기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그러나 조정민의 뜻심은 강했다. 우승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정민은 13번홀, 15번홀, 17번홀에서 징검다리 버디를 잡아내며 최종합계 11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다. 조정민은 '더 달랏 앳 1200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데뷔 첫 승을 올린 데 이어 두 번째 시즌 우승이라 강한 인상을 남겼다.



카이도 MBC플러스
여자오픈 Presented By 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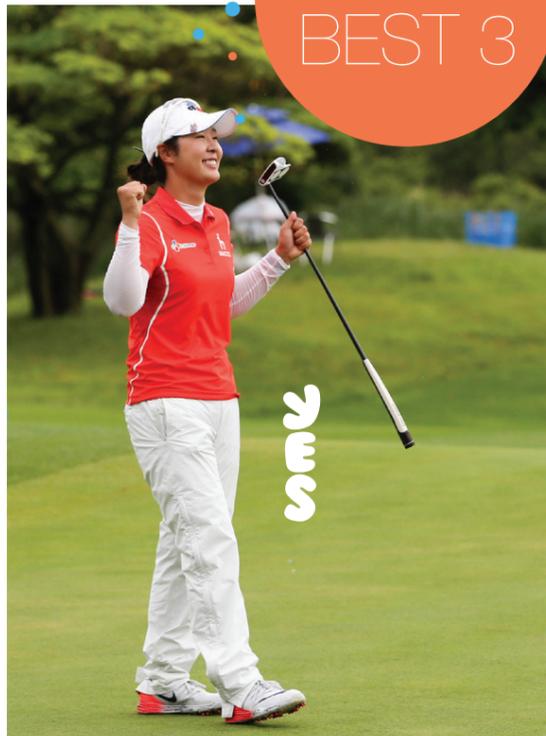
BEST 4



Let's Go!

제10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BEST 3



제10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제10회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가 시청률 순위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이 대회는 2012년부터 국내 골프 대회 최초로 올림픽 콘셉트를 적용해 성화 점화식을 진행하고, 스포츠 정신을 기리며 1위뿐만 아니라 2, 3위에게도 메달을 수여하는 등 차별화된 모습으로 인기가 많은 대회다. 올해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기념한 채화식과 성화봉송 이벤트로 골퍼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회는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CLPGA의 시유팅이 추천 선수로 출전해 기대를 모았다. 이외에도 대회 개최 시점으로 1승씩 기록한 고진영, 김해림, 배선우, 조정민의 다승을 향한 도전과 꾸준한 성적으로 신인상 포인트 상위권에 머물러 있던 루키들의 경쟁구도가 불만했다. 1라운드에는 김지현2와 신인 이다연이 8언더파 코스레코드 타이틀을 작성하며 공동 선두에 올랐다. 2라운드에는 박지영과 장수연의 활약이 돋보였다. 전반에는 장수연이 더블 보기를 범해 위기를 맞는 듯 했지만 버디 6개를 잡으며 공동 2위에 머물렀고, 박지영은 5언더파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에 섰다.

최종라운드에서 두 사람의 대결은 더욱 뜨거워졌다. 박지영은 전반에만 버디 4개를 잡아내 2위 그룹과 3타차로 격차를 벌려나갔고, 장수연은 12번홀까지 3타를 줄이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팽팽한 접전 끝에 14번홀에서 장수연은 더블 보기를 범했고, 박지영은 파 세이브를 하면서 타수를 더 벌렸다. 결국 최종합계 17언더파를 기록한 박지영이 생애 첫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6

BEST 5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16

2016시즌 열다섯 번째 대회인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도 많은 골퍼팬이 주목한 대회였다. 특히 지난 해의 우승자 장하나가 약 9개월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해 기대를 모았다. 1라운드에는 조윤지가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내 6언더파 66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뒤이어 아마추어 성은정과 배선우, 허윤경이 한 타차로 뒤를 이었다. 2라운드와 3라운드에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마추어 성은정의 활약이 대단했다. '장타 여왕' 박성현과의 맞대결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량을 선보이며 이를 연속 단독 선두의 자리를 지켰다. 2라운드에서 성은정은 보기 없이 5언더파를 적어내 단독 선두의 자리를 차지했고, 3라운드에는 박성현과 같은 조로 라운드 하면서 호쾌한 장타 대결을 펼쳤다. 나란히 2700야드를 넘나드는 두 사람의 장타는 갤러리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최종라운드는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졌다. 적은 타수차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17번홀까지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던 성은정의 우승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홀에서 성은정은 트리플 보기를 범하며 공동 선두의 자리를 허용했다. 10언더파로 가장 먼저 라운드를 마친 최은우와 타수를 따라잡은 오지현이 연장으로 승부를 끝냈다. 오지현은 선두였던 성은정과 4타차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했기에 뜻밖의 우승 기회를 얻었다. 연장 첫 홀에서 오지현은 3m 버디 퍼트를 성공해 거짓말 같은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 솔병원 이 알려주는 골퍼를 위한 골프 피트니스

골프 샷 전, 샷 후 회복의 기술

글 _ 나영무(솔병원 원장)

자료 제공 _ 솔병원(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연습과 라운드보다 더 중요한 샷 전과 샷 후. 간단한 스트레칭과 올바른 휴식만으로도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다. 체력 증강에도 효과적인 회복의 기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자.



회복의 기술

얼짱 신드롬과 함께 소위 몸짱이 우리의 화두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불어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 '잘생겼다'를 넘어 아름다운 신체를 보기 원하고 또 스스로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잘생기고 예쁘기만 하면 됐던 연예인들도 요즘에는 골퍼지나 초콜릿 복근을 외치며 몸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각종 훈련법과 다이어트 방법을 다룬 서적들이 넘쳐나고 있다. 골프로 비슷한 것 같다. 골프로 관련된 자료는 넘쳐나지만 넘쳐나는 정보 때문에 정작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강한 훈련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강한 신체를 만드는 방법일까? 그런 훈련이 좋은 샷을 만들까?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훈련, 영양 그리고 휴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이뤄질 때 훈련효과도 좋게 나오게 되고 훌륭한 샷을 만들 수 있다. 마음만 앞서 매일 장시간 연습을 하거나 무리한 연습을 하는 것은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몸만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다.

다리를 올리자



연습이나 라운드 후 피곤함이 몰려올 때 혹은 다리 근육에 통증을 느낄 때 누워서 다리를 올려주는 방법은 근육의 피로를 푸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 몸의 순환시스템 중 림프시스템이 있는데 피로해진 다리를 누워서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된 연습 후 발생한 혈관 속의 노폐물을 림프시스템이 흡수하고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체면 세우지 말고 누워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은 피로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상체의 경우 특별한 통증이 없더라도 어깨나 손목처럼 무리가 가기 쉬운 부위에 찬 물병을 얹어주거나 샤워를 할 때 차가운 물을 뿌려주면 통증 완화에 좋다.

스트레칭을 하자



스트레칭은 근육의 회복과 근육통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스트레칭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만 증가시킨다. 우리 몸의 건(아킬레스건 같은)에는 '골지건기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 모양이 스프링처럼 생겨서 통증을 느낄 만큼 급작스럽고 강한 스트레칭을 하면 이 감각기관이 신호를 보내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수축시키게 된다. 때문에 급작스럽고 강한 스트레칭은 근육의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스트레칭은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되 통증이 없도록 해야 효과적이다. 스트레칭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워밍업 후와 연습 후 몸이 더울 때 혹은 온기가 남아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스트레칭 지속시간은 한 부위 당 30초씩 3회가 가장 적절하다.

마사지를 하자



마사지를 하면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피로한 근육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마사지는 근육의 경련도 줄여주고 통증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마사지를 통해 림프의 순환을 도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마사지가 없더라도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마사지를 할 수 있다. 마사지 오일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오일이 없더라도 로션을 이용해 근육을 마사지해주면 된다. 마사지를 할 때 주의 할 점이 있는데, 강하게 혹은 근육이 아프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근육을 손 전체로 살짝 눌러준 상태로 근육의 결을 따라서 쓸어 올리듯이 해주는 것이 좋다. 손으로 근육을 쓸어 올리다 보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통증을 느끼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통증이 있는 부위를 소염진통제를 발라주면서 마사지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팔꿈치 주변처럼 골퍼들이 통증을 느끼기 쉬운 곳에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적이다.

먹고 마사지



마라톤이나 축구 같은 격렬한 운동처럼 눈에 보일 만큼 땀을 흘리는 운동은 아니지만 골프로 수분보충과 영양공급이 필수다. 특히 여름철이나 장시간 라운드를 할 때는 반드시 목이 마르기 전에 수시로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해준다. 음식 또한 연습이나 라운드 직전에 먹기보다는 소화가 충분히 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2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면 이미 늦다. 당장 허기지 않더라도 미리 조금씩 먹어두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소 허기지다고 느낄 때면 이미 체력이 고갈 된 상태이며 이때 음식을 먹더라도 바로 열량이 보충되는 것은 아니다. 바나나나 초콜릿 등을 가지고 다니며 매홀 조금씩 먹어두면 체력유지에 효과적이다. 잠깐의 연습의 경우는 괜찮지만 장시간 연습이나 라운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만큼 육류보다는 빨리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권장한다. 특히 라운드 전날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다음날 탈수현상이 생겨 물을 많이 먹게 된다. 연습이나 라운드를 마치고

나서도 맥주를 마시기보다 충분한 수분섭취를 하고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식사를 하는 것이 회복에 좋다.

훈련만큼 중요한 휴식과 회복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많이 사용하면 무뎠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쉬지 않고 사용하기만 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다. 무뎠진 칼을 갈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운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섭취를 해주고 운동 후에는 빠르게 영양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휴식과 회복은 보다 좋은 샷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운드 후 목욕탕에 들어가더라도 뜨거운 물에는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냉탕부터 들어가는 것을 권장한다. 골퍼는 네 시간 이상을 온몸 관철과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며 이때 열을 발생시키는 데 이 열을 식히지 않으면 염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가운 물로 먼저 열을 다스린 후 따뜻한 물로 행구는 것이 좋다. 일종의 냉찜질인 셈이다.



KLPGA와 함께하는

첫 번째 나눔의 시간

2016년 동계 봉사활동의 현장 속으로

KLPGA는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KLPGA 동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동계기간 동안 여섯 차례의 봉사활동을 시행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시락에 따뜻함 가득 담아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12월 14일(수), 남양주외국인근로복지센터에서 첫 번째 '2016 KLPGA 동계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KLPGA 김경자 전무이사와 소속 선수 4명(김명희, 장수연, 임연정, 박은수), 사무국 직원 4명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남양주외국인근로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눔도시락'을 통해 도시락 담기와 도시락 전달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KLPGA투어 '더 채리티 오픈'을 통해 조성된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의 겨울 점퍼와 후원금이 남양주외국인근로복지센터에 전달됐다.

참가자는 이날 봉사를 통해, 점심 식사를 할 수 없는 마석가우공단 근방 결식아동 200여 명에 도시락을 전달하며 따뜻한 관심의 손길을 전했다. 올시즌 KLPGA투어에서 활약한 장수연은 봉사활동 참여 계기에 대해 "항상 연말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올해는 꼭 해보고 싶어 신청했다"고 밝힌 뒤,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미안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16 KLPGA 동계 봉사활동 일정

- 12월 14일 (수) 남양주외국인 근로복지센터
- 12월 19일 (월)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 12월 28일 (수) 모자이크지역 아동센터
- 1월 3일 (화) 송암동산
- 1월 5일 (목) 신망원
- 1월 10일 (화) 푸른초장복지



첫번째 동계 봉사활동에 참석한 김명의, 장수연, 임연정, 박은수

사람 가득, 따뜻한 도시락이 완성 됐어요!



배달하기 전 도시락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선수들



마석가우공단 근방 결식아동 200여 명에 도시락을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해 따뜻한 손길을 건넨 장수연

KLPGA 2016

루키 릴레이 인터뷰

KLPGA 2016 정규투어 신인상 대상자는 56명이다. 하지만 대회 출전을 할 수 있는 선수는 20여 명뿐. 이외 선수들은 상위 시드권자의 결원이 생길 때 만 출전할 수 있어 포인트 쌓기가 쉽지 않다. 신인선수들은 매주 처음 접하는 코스와 빠른 그린, 그리고 정규투어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토로한다. 지난해 34명의 루키 인터뷰에 이어 올해는 32개 대회 중 20여 대회에 출전한 15명의 신인들을 대상으로 '2016 루키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2016시즌을 보낸 루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릴레이 순서 팬텀 클래식 with YTN 대회 종료기점 상금순위 순]



글·사진 | KLPGA 명예기자 김윤성



interview

01

김지영2 “두 번의 연장 준우승, 골프인생 큰 경험”

시드순위 5위로 정규투어 자격을 얻어 27개 대회에 참가해 컷 통과 20회, 톱10 6회 중 두 번의 연장전 패배가 아쉬웠다. 지난 ‘삼천리 투게더 오픈 2016’에서 박성현(23.넵스)에게, ‘제38회 KLPGA 챔피언십’에서는 배선우(22.삼천리)에게 연장 접전 끝에 ‘아깝게’ 우승을 내주었다. 하지만 신인으로서 가장 먼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지영은 “연장전 패배로 2위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가장 좋은 대회지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연장전이 생각난다”면서 “올해 1승이 목표였는데 두 번이나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김지영의 말처럼 두 대회에서 1승을 했다면 현재 신인상 경쟁 구도가 달라지고 더 치열했을지도 모른다. 김지영은 “처음 댄 정규투어가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 만족한다. 우승을 놓쳐 아쉽지만 재밌었다”고 2016시즌을 보낸 소감을 전했다.

김지영은 올시즌을 끝낸 자신에게 60점을 매겼다. 내년 투어시드 유지에 16위이면 신인으로서 만족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나름 정규투어를 대비해 샷이나 구질연습을 하고 왔다. 하반기 성적이 생각보다 낮아 그렇게 준 것이다. 그린 주위에서 실수가 많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다양한 어프로치샷을 연습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단조로운 샷을 구사해 40점을 깎았다”고 했다. 내년에는 어떤 모습의 김지영을 만날 수 있냐고 묻자, “2017년에도 첫 승을 하고 싶다. 올해 언니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많이 배웠다. 그런 기억들이 너무 좋다. 내년에도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오랫동안 언니들과 투어생활을 하고 싶다”며 김지영은 “드림투어에서는 해장국, 순댓국집만 찾아다녀 괴로웠는데 정규투어에 오니 매주 다른 코스에 무엇보다 식사가 ‘공짜’라서 좋았다”고 해맑게 웃었다.

매 대회 코스레코드 기록에 도전하고 싶다는 김지영은 “골프가 잘 될 때나 안될 때나 항상 꾸준하게 응원해주는 팬들 덕분에 나태해지지 않고 올해 좋은 성적을 얻었다”면서 자신의 외모를 닮은 ‘물란’ 팬클럽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Kim Ji Young

두 번의 연장
준우승,
골프인생 큰 경험

interview

02



So Young

USLPGA
신인상
도전하겠다

LEE



이소영 "USLPGA 신인상 도전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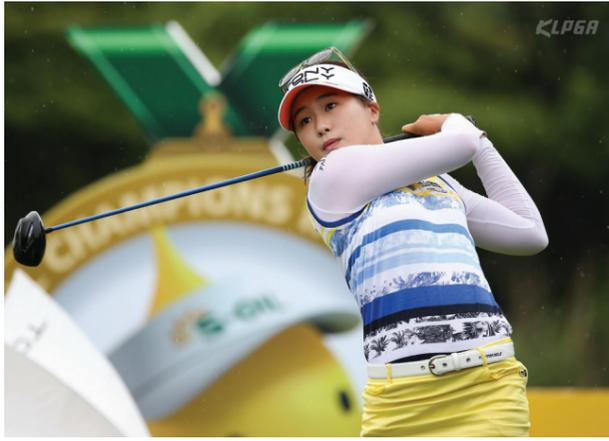
이소영(19.롯데)이 상금순위 18위(2억 9,734만 원)로 2016시즌을 마쳤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신인상은 결국 이정은(20.토니모리)에게 넘겨줘야만 했다. 시즌 초반부터 신인상 포인트 1위를 달리면서 강력한 후보였던 이소영은 '혼마골프·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3점 차이로 이정은에게 역전을 허용한 후, '팬텀클래식 with YTN' 이후 벌어진 34점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소영은 루키 릴레이 인터뷰 당시('팬텀클래식 with YTN') "올해 목표가 1승과 신인상이었다. '조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에서 우승한 만큼 신인상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대회에서 경험했듯이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승처럼 신인상도 하늘이 정해준다고 생각한다. (이)정은 언니를 신경 쓰지 않고 내 플레이에 집중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재미있게 치겠다. 국내 신인상 못 받으면 USLPGA 신인상 도전하겠다.(웃음)"고 신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올해 신인 가운데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이소영이 유일하다. 2015년 '조선일보-포스코 챔피언십'에서 최혜정2의 우승 이후 8개월 만의 신인 우승이었다. 톱10 5회, 29개 대회에 출전해 27회 킷 통과를 했다. 내년 시드도 확보했다. 신인으로서만 만족할 만한 성적이다. 정규투어에 오면 우승을 가장 하고 싶었다는 이소영은 "올해 목표를 50% 달성했다. 꾸준히 재밌게 플레이해서 만족한다"면서 "다른 신인들도 잘했고 모두 우승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운이 좋아 먼저 우승했다. 아빠가 캐디해서 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올해 내 점수는 80점이다"고 시즌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올해 투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한 이소영은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체력과 쇼트게임 연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몰아치기에 능한 이소영에게 퍼트만 받쳐준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소영 자신도 "올해는 생각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 내년에 자신 있게 치면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초등학교 4학년엔 골프채를 잡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소영은 도전하고 싶은 기록으로 '그랜드슬램'을 꼽았다. "6학년 때 그랜드슬램이란 단어를 알게 됐다. 그때부터 USLPGA투어 그랜드슬램을 꿈꿨다. 응원해 달라"는 이소영의 바람대로 그랜드슬램 달성을 응원한다.



이정은6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 꼭 타고 싶었다”

시즌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던 이정은(20.토니모리)이 ‘올해의 신인상’을 차지하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이정은은 KPGA투어 마지막 대회인 ‘ADT캡스 챔피언십 2016’에서 51위를 기록, 44위로 경기를 마친 이소영(19.롯데)과 함께 포인트 15점을 받아 신인상 포인트 2,012점으로 1,978점에 그친 이소영을 시즌 막판에 제치고 신인왕을 확정했다. 컷오프가 없는 ‘ADT캡스 챔피언십 2016’은 41위부터 72위까지 신인상 포인트 15점을 부여했다. 대회 최종라운드 전날 경기가 맘에 들지 않아 눈물을 흘렸던 이정은은 “다른 선수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웃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어 부모님께 효도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은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참지 못한다. 신인상 경쟁이 치열했던 ‘팬텀클래식 with YTN’ 대회 2라운드에서도 보기 2개에 버디 없는 파 세이브로 이소영과 동타였지

만 자신의 플레이가 맘에 들지 않아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목표를 세우면 꼭 이뤄야 직성이 풀린다. 이정은의 올 시즌 목표는 신인왕이 아니었다. “솔직히 큰 목표를 갖지는 않았다. 루키니까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면서 예선통과만 해도 잘하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첫 대회인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6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표가 높아졌다. 상금순위 20위 이내 들자고 마음먹었다.” 상금 순위 24위(2억 5761만 원), 28개 대회 출전 컷 오픈하는 ‘2016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단 두 번, 톱10에 7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게다가 그토록 원하던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까지 받았다. 이 정도면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줄 법한데 “올해 60점”이라고 잘라 말한다. “샷은 자신 있는데 쇼트게임이 부족하다. 시즌 초반 언니들의 쇼트게임 능력에 놀랐다. 잘하는 선수들과 계속 경기하다보니 하반기 즈음엔 조금 실력이 붙었지만 쇼트게임은 동계훈련 최고의 숙제가 될 것 같다.” 이정은은 이어 “언니들의 노련함과 날씨를 이용하는 플레이를 배우고 싶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바람이 불면 두려워 샷을 할 수가 없었다.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서 그런 바람은 처음 겪었다. 어떻게 샷



을 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였다. 내년에는 쇼트게임에 능한, 바람에 강한 이정은으로 변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규투어에 와서 고등학교 때 TV로 보면서 좋아했던 선수들과 함께 경기할 수 있어 행복해 처음에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고개를 가웃거리기도 했다. 내 플레이보다 다른 선수들 보느라 비뻤다.(웃음)”는 이정은은 올시즌 내내 연습라운드마다 매번 다른 선수들과 플레이를 했다. “루키로서 많은 언니들을 알고 싶었고 친해지고 싶었다. 또 함께 연습하면서 언니들에게 배우고 싶었다.” 올시즌 “루키로서 만족한다”는 이정은의 내년 목표는 ‘1승’이다. “2년 차 우승도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차츰 2승, 3승을 하겠다. 또한 평균타수, 평균퍼트수 톱10에 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정은은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전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다. 주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골프에 입문하게 해 주신 주동국 프로님, 현재 지산의 이준석 프로님, 후원사 등 인복이 많다.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 내년 루키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생각이다.”

interview

03

Lee Jeong Eun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 꼭 타고 싶었다

04



MEMBERSHIP

많이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

김아림

“많이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

“올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즐거운 한 해였고 한편으로는 아쉽다. 작년에 정규투어 경험이 두 번뿐이어서 동계훈련 때 무엇이 부족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올시즌 경기를 뛰어보니 알겠다. 그래서 이번 전지훈련이 특별히 기대되고 설렌다.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투어에서 더 발전한 김아림을 보여드리고 싶다.”

김아림(21,하이트진로)이 밝힌 올시즌을 마친 소감이다.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김아림의 2016시즌 성적은 상금순위 47위(1억 4,181만 원), 신인상 포인트 5위(1401점), 드라이브 비거리 4위(252.57미터), 톱10 3회, 루키로서 적지 않은 성과지만, 작년 드림투어 4승을 거두며 상금순위 2위로 정규투어 풀 시드를 받은 김아림에게 쏟아진 관심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친 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아림은 “루키로서 예선통과만 해도 다행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복이 심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기회가 왔을 때 찬스를 살리지 못해 아쉬웠다. 적응이 더딘 것도 문제다”고 답했다.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김아림의 입에서 심 대답이 쏟아졌다. 신인이 어떻게 이렇게 막힘없이 인터뷰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다. 매 대회를 마치고 프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없이 했던 말이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스스로 묻고 상의한 결과다.” 김아림은 행복해 보였다. “배울 점이 많아서 행복했다. 정규투어에 오니 거의 매일 골프 경기를 하니까 하루 못 쳐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았다. 그래서인지 더 즐겁게 친 것 같다. 또 갤러리의 열정적인 응원을 받으면 더 집중하고 잘 하게 된다.” 루키로서, 드림투어 상금순위 2위로서 신인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까?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드유지를 해서 내년에도 투어를 뛸 수 있다는 기쁨이 크다. 꾸준하게 투어에서 팬들을 만나고 싶다. 매년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투어 2년 차 김아림의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또 다시 '패딩'의 시대가 돌아왔다! 날씬하게, 따뜻하게 패딩 입는 법

유난히도 울거울은 추위가 매섭다. 패딩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지만 두툼하고 투박한 옷태에 따뜻함보다 추위를 선택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패션과 보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슬림핏 패딩 스타일링을 소개한다.

글_ 김소현

보온효과와 슬림핏, 일석이조의 패딩점퍼

따뜻한 겨울을 책임지는 패딩점퍼.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포근한 패딩이지만 두툼한 부피는 몸집을 거대해 보이게 만든다. 그렇다면 허리벨트가 있는 패딩점퍼를 선택하자. 허리라인을 잡아주는 벨트는 날씬해 보이면서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준다. 또한 힘을 댄 기장의 패딩점퍼는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한다. 외투 속에는 원피스와 레깅스, 몸에 붙는 니트와 스키니진을 매치하면 더욱 슬림하게 연출할 수 있다. 후드 또는 옷깃에 퍼로 장식된 기능성 패딩점퍼는 겨울용 액세서리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니 패딩점퍼 선택 시 고려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팁.

얇아도 따뜻하다, 경량 패딩 활용법

뚱뚱하고 무거운 패딩은 옛말이다. 최근 패션 업계에서는 얇고 가볍지만 따뜻한 경량 패딩에 주목하고 있다. 경량 패딩은 몸에 밀착시켜 착용감을 높이고, 겨울옷 무게에 따른 피로를 줄이면서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특히 아우터나 이너 패션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스타일링하기도 편하다. 이너 패션으로 활용할 때는 화사하고 원색에 가까운 스웨터나 외투를 매치하면 누구나 겨울 멋쟁이가 될 수 있다. 아우터를 선택할 때는 채도가 낮은 색상보다 채도가 높은 색상을 택해 포근한 느낌과 여성스러운 매력을 극대화 시키자. 여기에 패션 포인트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니 머플러로 센스를 더한다면 당신은 한겨울에도 건강을 챙기는 패션 피플로 거듭날 것이다.



pagoda star SNS



영어
JOE 류(조 류) 강사



일본어
김수진 강사



중국어
채민 강사

- A Hi, Andy! Long time no see. 앤디, 안녕! 오랜만이야.
- B No kidding. It's been ages. 그렇게 말이야. 정말 오래됐네.
- A I think it's been about three years. Are you on facebook?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너 페이스북 해?
- B I have an account but I mostly lurk. 계정은 있는데 난 거의 글만 읽어.
- A I see. I'll friend you on facebook. Let's keep in touch. 그렇구나. 내가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할게. 연락하자.
*friend는 '친구'라는 의미의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는 동사로 쓰입니다.
- B Ok. I'll take some selfies and upload them. 그래. 나도 셀카 좀 찍어서 올릴게.

- A どうしよう。彼女をすごく怒らせちゃいました。どうしよう。かのじょをすごくおこらせちゃいました。도오시오. 카노조오 스고쿠 오꼬라세짜이마시따. 어찌죠? 여자친구가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 B もう～、彼女から送られてきた画像を何日も放っておくからでしょう。もう～、かのじょからおくられてきたがぞうをなんにもほうっておくからでしょう。모오～, 카노조카라 오꾸라레메키따 가조오 난니찌모 호오트테 오꾸까라 데쇼. 으이구~, 여자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며칠이나 열어보지도 않으니깐 그렇죠.
- A メッセージを確認すると、画面に既読って表示されるから、開いてないのがばれちゃいました。めっせーじをかくにんすると、がめんにきどくてひょうじされるから、ひらいてないのがばれちゃいました。멧세지오 가꾸닝스루토, 가멘니 기도곳테 호오지 사래루까라, 히라이메 나이노가 바래짜이마시따. 메시지를 확인하면, 화면에 '읽음'이라고 표시돼서 열어보지 않은 것이 들통났어요.
- B スタンプが使って、かわいく謝ったらどうですか。すたんぷとかつかって、かわいくあやまったらどうですか。스탐프토까 쓰캬테, 카와이쿠 아야맛따라 도오데스까? 이모티콘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귀엽게 사과하면 어떨까요?
- A それが…、彼女にブロックされたんで。それが…、かのじょにぶろっくされたんで。소래가... 카노조니 브록고 사래면데. 그계..., 여자친구가 나를 친구 차단해버려서.

- A 最近我对学汉语很感兴趣。zuijin wǒ duì xué Hànyǔ hěn gǎn xìngqù. 요즘 나 중국어 배우는 데 흥미가 있어.
- B 我也是。所以我在‘微博’上找了一个中国朋友，互相学习呢。wǒ yě shì. suǒyǐ wǒ zài Wēibó shàng zhǎo le yí ge Zhōngguó péngyou, hùxiāng xuéxí ne. 나도야. 그래서 나는 '웨이보'에서 중국친구 하나 찾아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
- A 是吗? 我觉得互相学习对提高外语水平很有帮助! shì ma? wǒ juéde hùxiāng xuéxí duì tígāo wàiyǔ shuǐpíng hěn yǒu bāngzhù! 그래? 서로 공부하는 건 외국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
- B 那么, 你也上‘微博’吧。我帮你申请‘微博’吧。nàme, nǐ yě shàng Wēibó ba. wǒ bāng nǐ shēnqǐng Wēibó ba. 그럼, 너도 '웨이보' 해봐. 내가 너 가입하는 거 도와줄게.
- A 好的。只需要电子邮件就可以吗? hǎo de. zhǐ xūyào diànzǐyóujiàn jiù kěyǐ ma? gēn měinǚ yìqǐ qǔ chī wǎnfàn ne. 좋아,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되지?
- B 可以啊。我关注你, 你也关注我, 怎么样? kěyǐ ā. wǒ guānzhù nǐ, nǐ yě guānzhù wǒ, zěnmeyàng? 가능해! 나는 너 팔로우하고, 너도 나 팔로우 하는 거, 어때?

자료 제공 파고다스타(www.pagodastar.com)

KLPGA TOUR 2016 SPONSORS & PARTNERS

KLPGA를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KLPGA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규 투어 타이틀 스폰서



드림·점프·챔피언스 투어 타이틀 스폰서



마케팅 파트너



틀린그림찾기

66 페이스북(www.facebook.com/korealpga) 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99



사진 속 틀린 부분 세 곳을 찾아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지난 12월호 틀린그림찾기 당첨자 김수진 님에게는 KLPGA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